

Life of Youth

청년생활

8

1964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우리의 수도는 더욱 웅장하게 일떠선다



사진 설명

① 빠른 속도로 건설되는 김 일성 종합 대학 제 1 호 교사.

② 만경천 공사에 떨쳐나선 평양 시내 청년들.







③ 평양 시내 기관 기업소 로동자, 사무원들은 일요일을 리용하여 합장강 공사에 떨쳐 나섰다.

④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 제 2 계단 공사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결의를 다지는 평천 산업 건설 사업소 1 직장 청년 건설자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964. 8



차 례



표지 1 면 청진 제강소 7 호 회전로 리 인재 작업반원들의 기술 전습

당 정책 관철에서 결사대가 되자

조선 로동당 평안 남도 위원회 위원장 피 창린

조선 청년들은 조선 혁명을 완수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강토 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혁명의 주력군이다.

이 고상한 칭호를 지키며 이 어렵고도 영예로운 혁명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그를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와 행동의 지침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다.

당 정책—그것은 당이 혁명의 매 시기 매계단마다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맑스-레닌주의이며 조선 혁명 수행의 무기이다. 때문에 이는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는 등대이며 우리의 투쟁 행로를 가르쳐 주는 라침판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당 정책은 밤에 길을 비치는 등'불과 같다. 당 정책을 모르면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이 길을 가는 사람과 같이 앞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길이 험하고 어느 길이 평탄한지 전혀 분간할 수 없으며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도 있다. 초롱'불이나 전지'불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고 험한 길에 헛듣지 않고 평탄하고 가까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당 정책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때문에 조선에서 혁명을 완수하며 사랑하는 조국 강토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혁명 투쟁의 강력한 무기인 우리 당 정책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고 그를 결사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 정책 관철에서 결사대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곳 당 정책 관철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지어 당이 그것을 요구할 때에는 자기의 희생도 두려워 하지 않는 그러한 혁명 정신과 투쟁에서의 견결성을 말한다. 이는 또한 지난날 항일 빨찌산들이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라는 불굴의 투지와 기백을 안고 강도 일제와 싸워 이긴 그러한 백절불굴의 강의한 정신을 말하며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격전장에서 청춘의 가슴으로 불을 뿜는 원쑤의 화구를 막은 그러한 병사의 충직성을 말한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 정책 관철에서 결사대로 되는 것처럼 숭고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의 의무를 보라! 거기에는 《동맹원은 로동당원의 모범을 따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결사적으로 관철》할 데 대한 높은 요구가 규정되여 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우리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적극적 방조자이다. 전체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모르는 당 정책 관철의 결사대가 됨으로써만 이 영예로운 칭호에 보답할 수 있다.

* *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새로운 비약의 시기에 들어 서고 있다.

당은 전체 인민들을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로 부르고 있다. 7 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향하여 마지막 돌격전이 개시되였다.

우리 앞에 제기된 이 방대하고 영예로운 과업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 서야 하며 공업,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한다.》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은 실로 크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핵심적 력량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생기 발랄한 돌격대이다. 청년들은 지식이 있고 기술 문화 수준이 높으며 산악도 며 옮기고 바다도 메울 수 있는 힘과 불타는 정열이 있다. 이러한 청년들이 일단 결심을 내리고 투쟁에 나서기만 한다면 무엇인들 못 해 내겠는가?

지난날 우리 도내 청년들이 걸어 온 투쟁의 길만이라도 돌이켜 보자!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청춘의 가슴으로 원쑤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한 리 수복 영웅, 전후 불과 40 일 만에 로를 복구하고 첫 쇠'물을 뽑아 영웅적 조선 청년의 기개를 떨친 강선의 젊은 강철 전사들, 당이 새로운 연료 동력 기지 창설에로 불렀을 때 처녀지에로 달려 가 불과 몇해 어간에 현대적 대탄광과 청춘 도시를 건설한 송남의 청춘 남녀들, 추운 겨울 찬 바다'물에 뛰여 들어 몽을 막고 5,000 정보의 새 땅을 눅은 청년들, 이런 기백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못 해 낼 일이란 없다.

바야흐로 7 개년 계획 수행의 하반기 과업 수행에 들어 선 우리에게는 이미 해 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더 많은가!

우리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의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강철, 화학 비료, 뜨락또르, 자동차, 세멘트, 화학 섬유 등 공업 제품의 생산에서 더욱 커다란 전환을 일으켜야 하며 또 이 문제의 성과적인 해결에서 중요한 고리로 되는 전력, 석탄, 광물 생산 등에서 계속 큰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농촌 기술 혁명, 특히 화학화, 기계화를 강력히 촉진시키고 2 모작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등 농업에 계속 힘을 집중하며 알곡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며 축산, 과수, 잠업, 공예 작물 등의 생산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실로 우리는 오늘 7 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시기에 들어 서고 있다.

청년들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후 재'더미 우에서 복구 건설을 다그치던 그 기세로, 5 개년 계획을 2 년 반이나 앞당겨 수행한 그 기세로 천리마의 진군을 다그쳐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대이다. 기술 혁명은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하는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김 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선두에 서야 할 사람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다. 과거에 기술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나라를 부강한 현대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오래 동안 식민지 통치 밑에서 온갖 고역에 시달려 온 우리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력사적 임무가 바로 우리 시대의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부과되였다.》

우리는 지난날 덕천의 로동자들과 청년들이 온갖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극복하고 자기의 힘과 기술로 불과 40 일 만에 승리호 첫 자동차를 만들어 낸 영웅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이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깊이 깨닫고 힘을 합쳐 모든 일에 이악하게 달라붙는다면 세상에 못 해 낼 일이란 없다.

청년들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계 기술로 장비하며 낡은 기술 기준을 타파하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는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 추켜 들 것이다.

현 시기 청년들 앞에는 실로 무겁고 영예로운 과업이 불과되고 있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직한 우리의 용감한 청년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여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펼쳐 놓은 휘황한 계획—7 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영예로운 투쟁에서 또다시 승리자로 되여야 할 것이다.

❀ ❀

청년들이 당 정책 관철에서 결사대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 정책 학습을 일상적으로 깊이 있게 하고 그의 본질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 정책이 자신의 피와 살로, 사상과 의지와 신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실로 당 정책을 학습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단 하루도 중단할 수 없는 첫째가는 혁명 과업이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심오히 연구하는 것은 청년들의 사상 수양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의 로작에는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승리한 전 로정이 리론적으로 개괄되고 있으며 그 경험이 일반화되였으며 혁명의 수행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여 있다.

때문에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깊이 연구함으로써만 우리 당의 투쟁 력사와 당 정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을 당'적 사상 체계로 튼튼히 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당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허다한 난관들이 있을 수 있다.

청년들은 당 정책 관철에서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한 일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해 내고야 마는 혁명가적 기질을 가져야 한다. 일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가슴 아파하며 곤난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곤난을 용감하게 맞받아 나가며 완강하게 싸우는 거기에 바로 혁명가들의 고귀한 품성이 있다.

나는 끝으로 청년들에게 지, 덕, 체가 겸비된 전면적으로 발전한 새 형의 인간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수양과 단련에 더욱 힘쓸 것을 권고한다.

사회주의 건설이 높은 단계에 들어 선 오늘 선진 과학 기술을 습득함이 없이 그리고 건전한 사상과 도덕과 체력을 소유함이 없이 당 정책을 성과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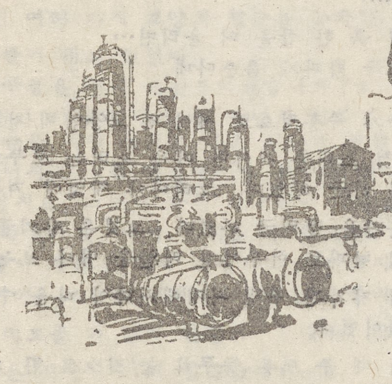
바야흐로 오늘 조국은 지식 있고 능력이 있으며 건전한 도덕과 체력을 겸비한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결코 《만세》나 웨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찌기 김 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만세는 안 불러도 사업을 잘 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희생시킬지언정 당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우리 당 정책의 매 구절마다에는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과 우리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가 반영되여 있다. 때문에 청년들이 당 정책을 결사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곧 인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길이며 청년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인 것이다.

전체 청년들은 당 정책 관철에서 견결한 결사대가 됨으로써 당과 수령 앞에 무한히 충직한 붉은 전사가 되자!

비료산이 보인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 밤차로 흥남에 내린 우리가 한 려관의 현관에 막 들어 섰을 때였다. 웬 청년 하나가 숨이 턱에 닿아 들이닥쳤다.

사람들의 주위가 그에게 쏠렸다. 환한 불'빛에 드러난 청년은 온통 물'자루가 되여 있었다. 비옷을 입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걸치고 있었으며 우산은 두 개나 들었으나 아예 펼쳐 보지도 않은 것 같았다. 투박한 장화 안에도 물이 찼는지 발을 옮길 때마다 철저럭 소리가 났다. 그에게 몹시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였다.

한동안 주위를 살피던 청년은 어색한 웃음을 짓더니 접수구로 다가 가서

《아주머니, 차련관에서 오신 손님이 계신가 좀 알아 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 모르겠는데…저 광산 기계 공장에서 우리 건설장에 설비를 싣고 오신 손님입니다. 방금 차에서 내리셨겠는데요. 좀 찾아 주십시오…》

청년의 부탁을 받고 접수 대장을 뒤적이던 아주머니는

《네, 5 호실에 계십니다.》이렇게 이르고는 그 손님을 찾으러 갔다.

잠시 후에 광산 기계 공장에서 왔다는 그 손님이 접수원에게 불려 나왔다.

《누구신가요?》

보니 손님은 자기를 찾아 온 청년이 초면부지인 모양이였다.

《네, 저희들은 〈가스화 청년 돌격대〉원들입니다. 역에서 기다렸는데 그만 길이 어긋났습니다. 무연탄 가스화 직장 설비를 이 밤으로 가져 가려구요…》

《이 비오는 밤에요?》

손님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러나 그는 물젖어진 청년을 미더운 눈으로 찬찬히 보더니

《그럼 곧 역으로 갑시다. 참 동무들은 불같은 청년들이요.》하고 감탄해 마지않으며 청년을 따라 나섰다.

《손님, 우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비'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을 바라 보는 우리는 첫 발'자국부터 흥남 비료 공장 무연탄 가스화 직장 건설의 들끓는 분위기에 부닥치게 되였다…

이튿날 우리는 흥남 비료 공장으로 향했다. 무연탄 가스화 직장 건설장은 비료 공장 구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연탄 가스화 직장 건설 40 일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자!》

이런 프랑카드가 걸려 있는 구내에 들어 서니 집채 같은 기계 설비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무수한 가스탑과 가스관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는 곳곳에서 용접의 섬광이 날리고 있었다.

건설장으로 향하던 우리는 한 속보판에 눈'길이 멎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제'밤 사이에 역

에서 설비를 운반해다가 저탄장 벨트 콤베아를 조립!》

웬 일인지 우리는 어제'저녁 려관에 왔던 청년의 모습이 눈에 안겨 오며 그 속보의 글씨가 단순한 글씨로 보여지지 않았다. 우리가 가스화 청년 돌격대장 주 대봉 동무를 만났을 때 그는 무연탄 가스화 직장 건설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무연탄 가스화 직장 건설은 우리 나라의 화학 공업에서 일대 전진일 뿐만 아니라 화학 비료를 대대적으로 증대시킬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화학 비료의 주원료인 암모니아 생산은 많은 전력을 들여서 얻어 내는 수소와 그리고 공기 중에서 얻는 질소를 합성해서 만들어 내였던 것이다. 그에 쓰이는 전력은 자그만치 큰 발전소가 생산하는 량과 맞먹었다. 그러나 무연탄을 가스화하면 전기를 쓰지 않고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에서 직접 암모니아와 화학 제품을 얻어 내는 것이다. 때문에 이 직장 건설은 당이 제시한 화학 비료 150만 톤 생산에서 결정적 고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지 면적 12만 3천 평방 메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저탄장, 사별장, 건조로, 보일라, 발생로, 가스 탕크, 탈유, 합성, 변성 계통을 갖추는 방대한 건설이였다.

사회주의 농촌에 더 많은 화학 비료를 보내게 될 무연탄 가스화 직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들은 함흥시 내 청년들은 너도 나도 돌격대에 자원하여 나섰다. 그 중에서 700여 명이 선발되였다…

돌격대장 주 대봉 동무는 설명을 끝내고 나서 백 번 듣느니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현장을 돌아 보자고 하였다.

우리가 2천 톤의 무연탄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저탄장에 이르렀을 때는 한창 건물의 마감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5 색기와 《리 수복 중대》라고 새긴 중대기가 작업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벨트 콤베아실 쪽에서 씽씽 가대질을 하는 여러 명의 처녀 돌격대원들이 보였다.

이 흙 한 삽을 퍼 올리면

비료산 하나이 솟는다네
……
이 흙 한 삽을 퍼 올리면…
오곡 백과가 춤춘다네.

누가 즉흥적으로 지어 낸 모양인데 선소리처럼 첫 소리를 멕이면 다음 소리는 모두가 뒤따라 하군 하였다. 그러다가 제멋에 겨워 또 웃음판을 벌리군 하였다. 그것은 자기들의 로동의 결과로 이루어질 래일을 내다 보는 사람들의 자각된 투쟁 과정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생활이였다.

이 때 주 대봉 동무가 눈'짓으로 한 처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저 조 규순 동무는 이 곳 <중대의 보배> 이지요, 유명한 <규률 위반자> 이구요!》

어리둥절한 우리에게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민청 제 5 차 대회가 있던 어느 날 밤이였다. 저녁 점검을 하고 난 중대 지일관은 중대장에게 조 규순, 문 종덕, 신 의진 동무들이 숙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마음에 짚이는 데가 있어 낮에 그들이 일하던 굴착 작업장으로 나간 중대장은 어둑시근한 흙다기 안으로부터 날아 온 흙에 발'등을 얻어 맞고 소리 쳐 들었다.

《누구요? 규순 동무 아니요?》

그러자 흙다기 밑에서

《네, 중대장 동무…》

하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 왔다. 그는 조 규순 동무였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처럼 고개를 수구리고 있던 규순 동무는

《나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이예요. 당에서 한 그람의 비료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 농촌에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잠이 옵니까. 저는 지난날 비료 한 되'박을 빚으로 얻어 내다 쓰고 가을에 가서 거둔 곡식을 지주에게 다 털리고 말았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하고 중대장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그를 따라 중대는 연 사흘 동안을 작업장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국의 만년 대계를 이룩할 이 위대한 사업에 떨쳐 나선 그들은 지치지 않았다…

우리가 다음에 찾은 곳은 작은 철공소를 방불케 하는 작업장이였다. 작업장에서 돌격대원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철근을 능숙한 솜씨로 만들어 내고 있었다.

《동무들은 본래 제관공이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자 한 청년이 입가에 히죽이 웃음을 지어 보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지요. <철>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일을 하였었지요. 그러나 당이 요구하니 우리는 기술을 배웠지요. 수상 동지는 우리 로동 계급 청년들이 농촌을 적극 지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직장을 빨리 지어서 비료를 더 많이 만들어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지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은 잠시 말을 끊고 작업복 주머니를 뒤져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농촌에 진출한 동창생에게서 온 것이지요… 그저 화학 비료를 더 많이 만들어 보내라는 겁니다. 억년 황금'벌은 문제 없다구요…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돌격대원들은 메마른 땅에 비료 한 줌 못 주는 저 남녘 땅 농민들의 한숨 소리도 듣고 있답니다…》

한 청년의 절절한 생각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었다. 바로 이런 청춘들로 하여 우리의 조국은 영원히 젊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철근 교정기를 바로 저 강 현채 동무가 만들었습니다. 일흔 아홉 번을 실패하고 여든 번만에 성공한 것인데 종전에 쓰던 기계보다 3,900 %의 능률을 낸다는 것이 공인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 <폭풍 붉은기 중대> 동무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공사를 다그치기 위해 전 중대가 달라붙어 저 59 배의 능률을 내는 대형 철근 교정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대의 자랑을 돌격대장 동무가 이렇게 대신하여 말하였다. 건설장 어디에 가나 공사를 다그쳐 한 그람의 비료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 보내려는 젊은 건설자들의 뜨거운 심정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들 뿐이다.

어느덧 또 굵은 비'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건설자들의 일'손은 그칠 줄 몰랐다. 그 불꽃 튀는 로동 속에서 그들은 머지 않아 점령될 150만 톤의 화학 비료산을, 아니 억년 오곡 백과 주렁질 조국을 바라 보고 있는 것이다.

본사 기자 한 현준

생활의 거울

결코 적은 일이 아니다

광일 동무는 정비원 사무실 앞에서 힘 없이 돌아 섰다. 밤이 퍽 깊어서 수직원을 내놓고는 그를 도와 줄만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날 그의 기범선 기관에 고장이 생겼다. 스핑톨을 구해야만 당장 래일 아침에 배가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광일 동무는 동무들이 래일 아침에 손질하자는 것을 한사코 뿌리치고 비오는 령'길 20 리를 달려서 여기로 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정비원을 찾아 가 사정해 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스핑톨을 밤 안으로 꼭 구해야 한다.)

광일 동무는 정비원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꼽아 보았다. 김 동무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 동무네 집은 거기서도 또 10여 리를 더 가야만 했다. 그러나 광일 동무는 주저앉지 않았다. 한 사람이 주저앉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한 광일 동무는 걸음을 다그쳤다…

야닌 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김 동무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주무시는데 안 되였습니다. 스핑톨이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스핑톨은 있소만 이 밤'중에 어쩌된 일이요?》

《그만 배의 기관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 이 밤 안으로 고쳐 놓으려구요.》

이리하여 스핑톨을 받아 쥔 광일 동무는 쉬여 가라는 것도 마다하고 다시 령 넘어 30 리, 고장 난 기범선이 정박한 곳으로 향했다.

× ×

룡대 수산 사업소 제 3 선단 4 작업반 기범선 561 호는 오늘도 젊은 기관장 곽 광일 동무에 의해 망망한 조국의 바다에서 만선기를 날리고 있다.

통신원 리 선일

염전의 젊은 살림'군

귀성 제염소 사로청 제 8 초급 단체
정 순자 동무에 대한 이야기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제염소 사로청 열성자 회의에 참가하였다가 돌아온 순자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동무들! 수상 동지께서는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화학 공업과 경공업 발전에서 귀중한 원료로 되는 소금을 한 알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

순자 동무의 머리 속에는 사로청 위원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수상 동지의 강령적 교시의 매 구절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동시에 자기들이 나라 살림에서 큰 몫을 담당한 중요한 초소에 서 있다는 생각과 자기의 조그마한 손이 나라의 큰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긍지감으로 하여 가슴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밤은 깊었다. 그러나 순자는 도저히 그냥 누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 나 염판으로 향했다. 사실 화창한 날이 계속되는 5~6월에는 염전에서 고양이 발이라도 빌리고 싶도록 일'감이 많아진다. 염판 고루기, 이끼 없애기, 소금꽃 꺼주기, 물꺾기… 등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많이 생산되는 소금을 염판에서 운반해 내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 소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 작업들에는 미처 손이 돌아 가지 못 했다. 순자는 밤에 이 소금을 다 운반해다 놓으면 작업반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부대 작업에 돌릴 수 있고 따라서 소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자신의 로동이 집단에 도움으로 된다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그 날 밤 염판에 달려 나온 순자는 자정이 넘도록 혼자서 삭도로 10 톤 남짓한 소금을 다 운반해 놓았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순자는 조금이라도 생산에 도움을 주려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이렇게 달려 나와서는 남몰래 소금을 운반해 놓군 하였다.

처음에 작업반원들은 이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차츰 그들은 매일 밤 염판에서 소금을 말끔히 운반해 내군 하는 것이 바로 작업반에서도 가장 나어린 순자 동무라는 것을 알고는 모두 크게 감동되였다.

《정말 작아도 고추알이라구 우리 작업반의 북덩이란 말이야!》

이것은 순자 동무를 두고 이 곳 작업반원들이 하는 말이다.

지난 어느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갑자기 비가 올 것이 예견되니 급히 대책을 세우라는 참모부의 지령이 내려 왔다. 아니나 다를가 날씨는 급변해지면서 남쪽으로부터 비 구름이 몰려 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소금'더미에 덮을 나래가 부족되였다. 두 개의 큰 소금'더미가 절반도 덮이지 못 한 채 있었다. 잘못하면 애써 만든 귀중한 소금 더미들을 다 녹여 버릴 수 있었다.

반원들은 초조하여 이리 저리 뛰여 다니기만 하였다.

이 때였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짜나래 퇴적장 쪽에서 《여기 나래가 있어요!》 하고 웨치며 나래를 한 잎씩 이고 오는 두 처녀가 있었다. 순자와 같은 또래인 순길이였다. 그들이 가리키는 퇴적장 쪽으로 달려 가 보니 과연 거기에는 알뜰하게 손질한 나래가 한 더미나 실히 쌓여 있지 않는가!

이 한 더미의 나래—여기에도 역시 나라 살림에 대하여 애타게 마음을 쓰는 순자의 간곡한 심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순자는 얼마 전부터 퇴적장에 쌓여 있는 짜나래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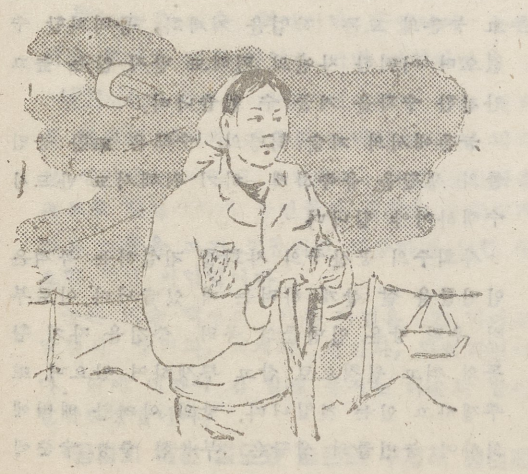
(여기에도 숱한 사람들의 로동과 땀이 깃들어 있다. 어떻게 재생하여 리용할 수가 없을가?)

순자는 나라 살림에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라는 수상 동지의 교시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더욱 강하게 가슴에서 불타 오르군 하였다.

어느 날 순자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순길이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 놓았다. 순길이 역시 순자의 의견을 쾌히 접수하였다. 이 날부터 두 처녀는 점심참이나 달'밤을 리용하여 짬짬이 짜나래에서 성한 것을 뜯어서 한 장 두 장 엮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커다란 한 더미의 나래를 만들었던 것이다.

나라의 살림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그러한 훌륭한 눈이 있다. 순자는 일부 동무들이 보고도 무심히 지나치는 염좌와 염판에 흘어진 한 줌의 소금에 대해서도 길'가에 굴러 다니는 녹쓴 쇠붙이 하나에 대해서도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한나절만 손이 안 가도 새빨갛게 녹이 쓸고 습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히 해도 전기 사고가 나기 쉬운 염판에서 자기가 맡은 양수기와 전동기를 눈'동자와 같이 알뜰히 다루어 직장적으로 제일 먼저 붉은 기대 칭호를 쟁취한 것도 순자 동무였고 휴식일마다 직장 내 16 명에 달하는 제대 군인들의 빨래'감을 도맡아 손질해 주는 것도 순자 동무였다.



지난 어느 휴식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 날 순자는 식전부터 작업반 염판의 물'고며 전동기, 양수기 등을 한 바퀴 돌아 보고 염판에서 채 날라 내지 못 한 소금까지 나르고 저녁에 영화 구경을 떠났다. 자기 작업반 염판 곁을 지날 때면 의례 하는 버릇 대로 그는 얼른 염판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던 중 2 증발지 한 모퉁이에서 새로 생긴 게 구멍을 발견하게 됐다. 흔히 어떤 관리공들은 게가 둑을 뚫어 짠물이 샐 정도가 아니면 그까짓 게 구멍으로 짠물이 들어 가면 얼마나 들어 가겠는가고 하면서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자에게는 그 자그마한 구멍도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는 게를 보면 의례히 그 자리에서 잡는 것은 물론 짠물을 한 방울이라도 류실시키지 않기 위해 꽉 게 구멍을 틀어 막군 하였다.

(어떻게 할가? 세 개나 되는 게 구멍에서 손으로 쑤셔 게를 잡아 내고 도로 메구자면 영화 구경할 시간이 늦을 텐데… 또 옷도 버릴 것이 아닌가. 래일 아침 일찍 나와 잡으면…)

그러나 차마 그 대로 가기엔 제염공으로서의 량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옷을 벗어 부치고 게를 잡기 시작했다. 게를 다 잡고 그 구멍을 메운 후에 다시 염판을 살펴 보고야 구락부로 장달음을 쳤다.

비록 시간이 늦어 영화에서 재미 있는 장면들을 놓쳐 버린 아쉬움도 없지 않았으나 순자의 마음은 이 날 따라 전에 없이 상쾌하였다.

이렇듯 나어린 순자의 가슴 속 그 어디에서 그렇게도 아름답고 훌륭한 정신이 흘러 나오는 것일가!

무엇보다도 순자 동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자.

《저는 그저 사로청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예요. …저는 언제나 수상 동지의 교시 대로 살며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뿐입니다.》

본사 기자 김 영 길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후에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기술 혁명이 왜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의 하나로 제기될가요?

답; 그것은 우선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화가 완성되여 농촌에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립되고 농민들은 온갖 착취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직 어렵고 힘든 일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지 못 하였습니다. 아시다싶이 우리 나라 농촌은 장기간에 걸치는 봉건 통치와 36 년 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기술 경제적으로 매우 락후하였습니다. 농민들은 2·중 3 중의 착취와 억압을 받아 왔으며 고되고 힘겨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천 년 동안 락후한 농기구를 가지고 온갖 고역에서 시달려 온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숭고한 혁명 과업입니다.

이 혁명 과업을 해결하자면 농촌에서 반드시 기술 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없고 따라서 공산주의로 넘어 가기 위한 물질 기술적 준비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온갖 가능성을 리용하여 계속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수행하여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농촌의 락후성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농업에서는 모내기, 김매기 등 힘든 일이 적지 않게 기계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모두 기계와 전기의 힘으로 하고 화학의 힘으로 한다면 일은 헐하고 흥겨우면서도 비할 바 없이 높은 능률을 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에서 기술 혁명은 농촌 경리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농업 생산력을 부단히 장성시켜 농업을 공업에 따라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기술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현대적 농기계와 선진 기술을 광범히 생산에 도입할 수 없고 농촌의 모든 작업을 기계화, 동력화할 수 없으며 어떠한 자연의 피해도 받지 않는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의 수행은 또한 농민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은 인민들을 잘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투쟁하여 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의 이러한 배려에 의하여 농민들의 생활은 부유한 중농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일반 생활 수준은 아직 도시의 수준에 따라 서지 못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수행함으로써만 농업 생산물을 더욱 장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분배 몫을 증가시켜 그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농가에 전기가 들어 가게 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은 문화적으로 될 것이며 더욱 유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농업의 기술적 락후성을 없애고 농촌을 현대적 기계 기술로 꾸림으로써 농촌을 공고한 식량 기지와 공업 원료 기지로 만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극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더욱 촉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문; 그러면 우리에게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추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자립적 민족 경제가 튼튼히 꾸려졌고 공업이 농업을 도와 줄 수 있는 충분한 밑천이 마련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협동화가 완성되였으며 선진 과학 기술을 광범히 도입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였습니다.

이제 이 가능성을 충분히 리용한다면 능히 농촌에서 기술 혁명의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농촌 기술 혁명이란 무엇이며 농촌 기술 혁명의 기본 과업은 어떤 것입니까?

답;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이란 농촌 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 과학의 성과들을 광범히 도입하여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고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 과업입니다.

농촌 기술 혁명의 기본 과업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업의 발전 정도와 농촌의 구체적 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과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리화를 위한 당의 방침은 어떤 가물이나 홍수도 이겨 내고 억년 풍년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논'벼 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봄에 가물고 여름에 장마가 계속되는 기후적 제약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리화는 가장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수리화를 농촌 기술 혁명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여 왔으며 이미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만약 수리화에만 치우치고 기계화, 전기화를 등한히 한다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없고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농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농민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여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농촌을 전기화해야만 수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문화적인 농촌 건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경리의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되는 것입니다.

기계화와 함께 화학화를 해야만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을 촉진하며 병해충과 잡초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 기술 혁명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구성 부분입니다.

문;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테제에서 제시한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의 부분 별 과업들에 대하여 말씀해 줄 수 없을가요?

답; 우선 수리화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수리화에서 앞으로의 과업은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2~3 년 내에 논 면적을 70만 정보로

농구고 벼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압록강 지구 관개 공사와 신계 지구 관개 공사를 빨리 끝내여 새로 례성강 저수지, 재령강 저수지 등 큰 규모의 관개 공사와 도처에서 중소 규모의 관개 공사를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해안 일대의 많은 밭들을 논으로 풀고 간석지를 개간하여 논 면적을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치산 치수 사업 특히 중소 하천 정리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며 수원 함양림과 호안림, 방풍림을 조성하여 농토와 작물을 자연 피해로부터 막아 내야 합니다.

기계화에서는 밭갈이로부터 수확과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산 작업과 축산, 과수, 잠업 등 모든 부문의 작업을 기계화하며 나아가서는 종합적 기계화를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뜨락또르 대수를 7~8 만 대(15 마력으로 환산), 자동차는 3만~3만 5천대에 이르게 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계를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적합한 농기계를 많이 질적으로 만들어 내며 모든 포전을 정리하고 경종 체계를 개선하여 기계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 놓아야 합니다.

전기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건설을 다 같이 추진시키는 동시에 중소 규모의 발전소들을 전국 각지에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2~3 년 내에 모든 농촌과 농가에 전기가 다 들어 가게 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탈곡, 양수, 사료의 분쇄와 절단 등 모든 고정 작업을 전기화하며 집집마다 전등을 켜고 라지오를 듣고 전기 다리미를 쓰는 등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화학화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 토양과 농작물에 적합한 여러 가지 화학 비료를 충분히 보장하며 각종 살충제와 살초제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가까운 년간에 화학 비료 시비량을 정당 500 키로 그람, 장차로는 1 톤 이상의 수준에 올려 세우며 토양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 시비 체계를 세우고 화학 비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

문;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면서 집약적 영농 방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농촌 경리의 집약화는 다수확의 기본 고리이며 따라서 영농 사업에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으로 됩니다.

집약화를 위해서는 토지를 정리하고 개량하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2 모작 체계를 도입하며 간작 혼작 등을 더 광범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자를 개량하고 자급 비료를 더 많이 내여 모든 영농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고 논밭을 알뜰히 가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알곡 총수확고를 훨씬 높여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게 되고 축산업을 비롯한 기타 부문을 발전시켜 튼튼한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킬 수 있습니다.

문; 농촌 기술 혁명을 위하여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 청년들은 농촌 기술 혁명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로동 청년들은 더 많은 현대적 농기계와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 농촌에 보내 주어야 하며 농촌에 적극 진출하여 기술 혁명 과업 수행의 앞장에 서야 합니다.

농촌 청년들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영광스러운 직접적 담당자라는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로동 계급의 지원을 받으면서 농촌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서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논 면적을 확장하며 치산 치수를 위한 대자연 개조 사업에서 계속 돌격대가 될 뿐만 아니라 뜨락또르 운전수들은 뜨락또르와 농기계의 리용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농촌 청년들이 뜨락또르를 몰 수 있도록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기계와 농기구를 광범히 제작하여 화학화와 전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과학의 성과와 선진 영농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알곡 수확고를 계속 증대시키고 농업의 다각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계속 앞장에 서야 합니다.

(시)

조국의 아침에

박 호 범

벽체를 감돌아 흐르는 눅눅한 안개,
안개 속에 머리를 뜨는 아슬한 기둥,
어깨에 자며 멘 바'줄을 흐느적이며
허공중 사다리의 발판을 구르며
가슴을 솟구어 령천'벌의 하늘에로 날아 오른다.

손을 흔들어 기중기를 부르기도 하며
기둥 우에 또 기둥을 세우기도 하며
잔등에 축축히 땀을 흘리노라면
기둥들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아침 해여!

수도의 지붕과 지붕은 노을에 불타고
거리 거리엔 푸른 가로수 설렁이여라.
아득히 멀리엔 푸른 들이 설레이고
해'빛 실은 강물은 거울처럼 빛나라.

아름답구나, 내 사는 조국의 아침이여!
이런 아침을 맞기를 그 몇해이더냐,
언제나 기일은 바빴고 일은 어려웠어도
떳떳한 가슴으로 아침을 맞군 했더라.

얼음물에 뛰여 들어 젖은 바지를
우등'불에 말리우던 녹로장의 아침이여!
비낄른 공장의 높은 지붕 우에서
입당 청원서를 읽으며 맞던 그 아침이여!

아아, 그 아침과 아침으로 하여
내 조국에 뜨거운 땀을 흘려 바쳤건만,
못다 갚았어라, 어머니 조국의 은혜에—
못다 했어라, 당이 맡겨 준 청춘의 사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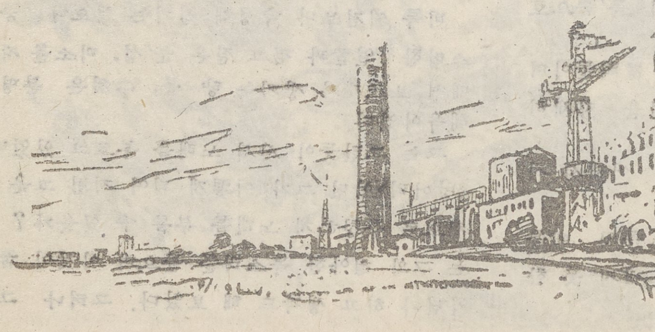
하기에 내 일에 끝이 있을 것이냐
백두에서 마련된 우리의 아침이거니,
그 분들처럼 그 분들처럼 살며
혁명에 몸을 바쳐 일해야 하리니,

오, 그래서 그래서 그대 어머니 조국이여!
내 이렇게 여기서 뜨는 해를 맞거니,
오늘 또 솟아 오르는 이 건물에
아름드리 기둥을 세우고 또 세우리라.

우리가 땀 흘리며 세운 여기에서
수도의 밤 하늘을 더 휘황히 밝힐
전기의 빛이 무지개로 비끼리니,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조국이여! 내 불타는 청춘의 정열을
그대 위해 즐거이 바치는 것이 아니냐
빛나는 조국의 아침이여!

1964. 8.



단편 소설

총을 잡은 처녀

김 동 식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나는 종군 기자로서 ×× 부대 전투원들과 함께 남으로 진격했었다. 아군의 노도와 같은 진격 앞에 연안 지방이 해방되던 날 나는 이 지방의 악질 지주였던 안 승관의 집을 수색하는 정찰 구분대원들 속에 있었다.

우리는 이 날 텅 비여 있는 그 지주놈의 집 음침한 지하실 한 구석에서 두 팔을 꽁꽁 기둥에 묶이운 채 실신해 있는 열 대여섯 살 난 한 소녀를 발견하였다. 동그스럼하고 귀엽게 생긴 그 소녀의 얼굴은 백랍처럼 해쓱하였고 입에는 흰 수건이 물리워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가?

아직도 그 처녀의 손목에는 약간 한 맥박이 뛰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애를 군의소로 업고 갔다.

얼마 후 소녀는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그 애는 뜻밖에도 벙어리가 아닌가? 전사들은 벙어리 처녀애를 측은히 여겨 친동생처럼 보살펴 주었고 그 애 역시 무척 전사들을 따랐다. 비록 말은 못 해도 웃을 때에는 그 애의 량 볼에 고운 보조개가 패우군 하였다.

지방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애의 이름은 혜옥이고 몇 해 전부터 안 승관의 몸'종으로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애의 지나 간 경력들이며 그 애가 갑자기 벙어리로 된 사연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도대체 지주 놈이 이 처녀애를 어째서 지하실에 가두어 넣고 달아났을가?)

우리는 이 문제를 알아 내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 내지 못 한 채 전선으로 떠나게 되였다.

나는 그 후에도 늘처럼 그 소녀에 대한 일을 잊을 수 없었다. 전사들과 함께 원쑤를 쳐물리치는 불 타는 전호 속에서도, 어느 정치부의 토굴 속에서 글에 대한 구상에 잠겨 있을 때에도 늘 그 소녀를 생각했었다.

나에게는 어째서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소녀에 대한 일이 더욱 궁금해졌다.

한 번은 그 애가 살던 연안 지방에 편지를 내봤지만 나는 이렇다 할 회답을 받지 못 했다.

세월은 어언간 몇 해가 지났다. 나의 기억 속에서 그 소녀에 대한 생각도 이제 와서는 희미해 갔다.

그런 어느 날이였다. 그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였다. 인민군 예술 축전에서 나는 그 혜옥이를 보았다.

그 때의 놀라움을 나는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다. 관중석에 있던 나는 《다음은 김 혜옥 동무의 독창입니다.》라고 소개자가 말했을 때만 해도 정말 무심히 동성 동명의 그 소녀의 이름을 그저 되뇌여 보았을 뿐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대에 나왔을 때 후리후리한 키의 그 처녀가 어김 없는 혜옥이라는 것을 알아 보았다. 하마트면 나는 크게 소리까지 지를 번 했다.

비록 예전보다 숙성해 지기는 했으나 동그스럼한 얼굴과 검고 짙은 눈'섭, 미소를 지을 때면 보조개가 생기는 량 볼, 그것은 분명히 혜옥이였다.

그는 그린듯이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벙어리》이던 그가 어떻게 되여 저런 고운 목청으로 류창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가? 나는 그의 청아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엄연한 현실이였다.

흥분된 나는 그의 노래가 끝나자 막 무대 뒤로 달려 갔다. 혜옥이도 나를 알아 보고 얼마나 반가와 하던지…

나는 여기에 이 날 밤 그에게서 들은 그의 모든 이야기를 그 대로 쓴다.

× ×

—대위 동지! 이렇게 만날 줄은 참말 뜻밖이예요. 너무도 뜻밖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자 하니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서두를 잡을 수가 없군요.

대위 동진 그 때 많은 것을 저에게 물었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 때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되였는가구요? 거기엔 참말로 긴 사연이 있어요.

본래 우리 집은 서울 근방인 뚝섬에 있었어요. 해방이 되였지만 일본 땅에 《징용》으로 끌려 갔던 아버지는 종내 돌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말 못할 고생을 겪지 않으면 안 되였어요. 그러나 그만 어머니마저 열병에 걸려 약 한 첩 못 써 보고 눈을 감은 채 깨여 나지 못했어요. 그 때부터 저는 의지가지할 곳 없는 고아로 되고 말았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문전걸식하며 떠돌아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달은 곳이 바로 연안 땅이였어요. 어느 날 나는 그 곳의 대지주인 안 승관의 집으로 동냥을 갔어요. 내가 부엌데기 할머니에게서 몇 술 밥을 얻어 가지고 대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마실을 갔다 돌아 오는 지주 놈과 맞다들게 되였어요. 그 놈은 나를 아래 우로 쭉 훑어 보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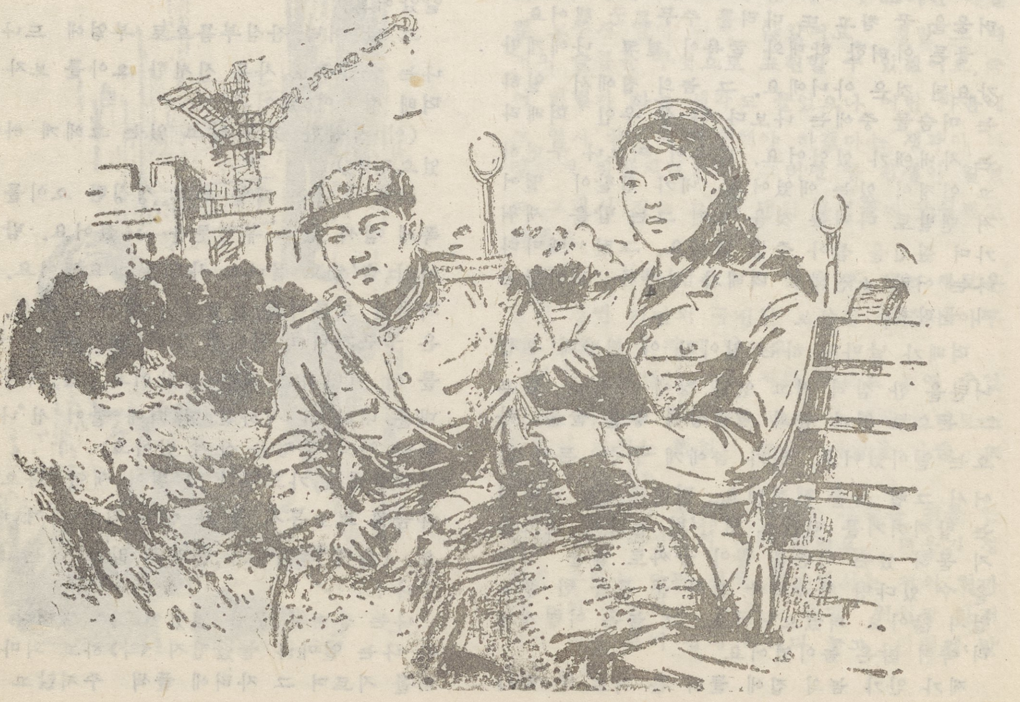
《허—이거 다 큰 계집애가 동냥을 하다니, 얘 너 오늘부터 내가 먹여 줄테니 우리 집에 있어라》하고 말하는 것이였어요. 나는 그 놈의 말에 영문을 몰라 토담 곁에 오도카니 비켜 선 채 오돌오돌 떨고만 있었어요. 그 놈은 안에 대고 소리를 치는 것이였어요.

《게 누가 없느냐, 이 애를 데려다 밥을 먹여라!》

그러자 안'방 미닫이가 열리더니 여우 같이 생긴 웬 녀자가 신을 찰찰 끌며 나왔어요. 후에 안 일이지만 지주 놈의 세째 첩년이였어요.

교활하고 리'속이 밝은 안가 놈은 그 때 나를 쭉 훑어 보고 패 부려 먹을만 하다고 타산했던 거지요. 이렇게 돼서 나는 안가 놈 집의 몸'종으로 됐어요.

안 승관은 연안 일대의 기름진 땅을 거의



다 차지한 《3만 석》 대지주였어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 놈의 집 커다란 쌀 뒤주에는 옥백미가 차고 넘쳤답니다.

내가 그 놈의 집에서 하는 일이란 여러 가지 잔심부름과 관절염이 있는 그 놈의 다리를 주물러 주는 일이였어요. 행랑에서 새우잠을 자다가 첫닭이 홰를 치고 울면 안가 놈이 거처하는 방의 미닫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그 놈이 깨자 잠'자리를 치워 주고 세수'물을 떠다 줘야 했어요. 미처 깨여 나지 못 해 그 놈한테 된'욕을 먹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였어요.

무엇보다도 낮잠 잘 자는 안가 놈의 버릇이 나를 더욱 괴롭혔어요. 그 놈은 리발할 때 스르르 오는 잠이 제일 편하다고 하면서 서울에 일부러 사람을 띄워 고급 리발 의자를 사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 리발 의자를 방안에 차려 놓고 선풍기까지 돌리면서 그 우에서 낮잠을 자군 했지요. 그러면 나는 아래로 뻗은 그 놈의 다리를 올려 주무르고 내려 주무르고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주무르고 나면 손맥이 탁 풀리고 손아귀에 자개바람이 일어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도 손맥이 풀려 조금만 쉬여도 그 놈은 어느새 눈을 번쩍 뜨고 나를 쏘아 보며 발로 툭 걷어차군 했어요. 그럴 때면 나는 터져 나오는 서러움을 꾹 참고 또 다리를 주무르군 했어요.

물론 이러한 학대와 굴욕이 결코 나에게만 강요된 것은 아니예요. 그 놈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 중에는 나보다 한 살 우인 덕배라는 사내애가 있었어요. 마음이 퍼그나 무던하고 인정이 있는 애였어요. 내가 신발이 떨어져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면 그는 밤을 새워가며 짚신을 삼아 주군 했어요. 그런 때마다 나는 어린 소견에도 덕배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덕배가 날마다 하는 일이란 이 지방에 흔한 너탄을 한 짐씩 지고 연안 장에 가져다 팔고 그 돈으로 안가 놈의 저녁상에 놓을 술을 사오는 일이였어요. 안가 놈에게 무슨 돈이 없어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덕배에게는 내버리는 밥찌꺼기를 먹이고 연안'벌 논판에 얼마든지 묻혀 있는 너탄을 팔아 공짜로 술을 처먹을 수 있다면 차곡차곡 모아 둔 돈을 한 푼도 헐지 않아도 되였으니까요. 그 놈은 이렇게도 리'속이 밝은 놈이였어요.

제가 안가 놈의 집에 들어 간 지도 두 해가 지난 어느 날이였어요. 그 날 안가 놈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마루 아래에 불러 놓고 말하는 것이였어요.

《에—다들 듣거라.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큰 불행한 일이 생겼다. 덕배가 장'거리에 갔다가 열병을 묻혀 왔다. 열병이라는 전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온 식솔이 위험하다. 경찰서에서는 덕배를 외진 곳에 격리시키라 했지만 나는 인정 상 차마 그럴 마음은 없다. 덕배로 말하면 량친도 없고 또 내가 그 애를 기른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돈을 들여 병 치료를 해 주려구 한다. 내 오늘 서울에다 전보를 쳤으니 곧 의사가 내려 올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함부로 덕배에게 문병을 해서 화를 입지 않도록 조심들 해라!》

글쎄 이런 변'일이 어데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밥을 수걱수걱 퍼 먹고 읍에 갔던 덕배가 갑자기 무슨 열병에 걸렸겠어요. 그러나 안가 놈의 분부는 그 때로 곧 법인지라 누구도 감히 덕배를 격리시킨 지하실 창고에 갈 념을 못 했어요.

그 이튿날 정말 서울에서 의사가 내려 왔어요. 린색하기 놀부보다 더한 안가 놈이 허겁지겁 술'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저는 아마 제 식솔이 병에 전염될가 두려워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 날 저녁 잔심부름으로 부엌에 드나 들던 나는 술안주로 자은 싱싱한 오이를 보자 문득 덕배 생각이 났어요.

(이 시원한 것을 앓고 있는 그에게 하나 주었으면…)

그래서 나는 제일 크고 싱싱한 오이를 치마폭에 감싸 들고 부엌문을 나섰어요. 밤이 깊어서 술'상도 끝나고 사방은 고요했어요. 나는 지하실 모퉁이를 살금살금 돌아 갔지요. 가슴은 두근거리고 뒤에서 안가 놈이 금방 목덜미를 콱 거머쥐는 것만 같았어요. 몇 개의 층층대를 내려 가 지하실 담'벽에 붙어 선 나는 가만히 안의 동정을 살펴 봤어요.

지하실에선 가느다란 불'빛이 새여 나오고 이따금씩 고르롭지 못 한 숨'소리가 새여 나왔어요. (옳지! 덕배가 혼자서 앓고 있는 모양이구나!)

나는 살며시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얼마나 놀랐던지 《악》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될래야 될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래야 억이 막혀 소리 지를 수도 없었어요.

글쎄 지하실 안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몸서리쳐지는 살인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안가 놈이 추켜 든 초'불 밑에서 입을 틀어 막히운 덕배가 죽은듯이 누워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왔다는 그 의사 놈은 이를 악물고 큰 병 만한 주사기를 덕배의 심장에 꽂고 피를 뽑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무서운 광경을 보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위 동지, 이야기의 순서를 좀 바꾸어야겠어요. 덕배의 등'골에서 뽑아 낸 땀으로 술을 사 처먹던 안가 놈에게 왜 그의 피가 필요했을가요? 거기에는 그럴만 한 리유가 있었답니다.

원래 안가 놈에게는 늦도록 자기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었습니다. 첩년을 세넷씩이나 갈아댔지만 종내 씨를 못 받고 있다가 50 줄에 들어 서서야 자식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금이야 옥이야 하고 기르던 아들 놈은 철이 들



무렵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안가 놈은 돈을 물 쓰듯 하면서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으나 하루하루 아들 놈은 죽어만 갔어요. 이럴 즈음 문둥'병엔 생사람의 심장의 피가 특효라는 풍문이 그 놈의 귀에 들어 갔어요. 그리하여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던 안가 놈은 드디여 이런 끔찍한 살인극을 조작했던 거예요. 실로 지주 놈의 잔인하고 포악한 행동을 직접 보지 못 한 사람들로는 나의 이런 이야기를 리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대위 동지!

그런데 이 몸서리쳐지는 살인 행동은 결코 덕배 혼자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였어요. 결국 그 무서운 참극을 직접 목격하다 들키운 나에게도 그 화근이 미쳤답니다.

덕배가 당하는 너무나 끔찍한 사실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나는 놈들에게 끌려 그 즉시로 지하실에 들어 갔어요. 그 때 나는 오직 몽롱한 의식 속에 혀가 따끔하는 것을 느꼈을 뿐이예요. 놈들은 자기들의 살인죄를 폭로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한 주사로 나의 혀끝을 못 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후 안가 놈은 나도 열병에 걸렸다고 머슴들에게 말하고는 지하실에 가뒀어요. 무시무시한 지하실에서 벽을 치며 《어머니》하고 불러 봤으나 목에서는 그 무슨 외마디 소리만 나갈 뿐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 때 저의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죽어 버릴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어린 마음에도 역시 살아서 복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치받치더군요. 그러면 중 전쟁이 일었고 그래서 저는 그 때 대위 동지들께 구원됐던 거예요.

대위 동지랑 전선으로 떠난 후 저는 새로운 인민 정권 기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라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의 부모로 되여 주었어요. 사랑에 굶주렸던 나는 이 때에야 비로소 인간이 가지는 한없이 높은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꼈어요.

인민 군대가 후퇴할 때에는 그들은 저를 안전한 곳에 피신까지 시켜 줬어요. 더우기 정전된 후에는 당과 정권 기관에서는 저의 혀까지 고쳐 주었어요. 하루는 리당 위원장 아저씨가 저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혜옥아! 이제는 싸움에서도 승리했으니 너의 혀도 고쳐야겠다. 원쑤들은 너에게서 말조차 빼앗아 갔지만 우리는 너에게 말만 아니라 노래까지도 주어야 하겠다.》

그 후 저는 군과 도를 거쳐 중앙에까지 후송됐어요. 전국에서 이름 난 의사들이 달라붙어 마비되였던 나의 설단 신경을 되살아 나게 해 줬어요. 그 후 저는 글도 배우게 됐지요.

정말이지 제가 이런 고마운 당의 품에 안길 수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 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총을 잡고 당과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길에 나섰어요.

참, 안가 놈의 그 후 소식을 말씀 드려야 하겠구만요. 그 놈은 후퇴 시기에 다시 연안 땅에 기여 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을에서 치안대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그 놈은 잃었던 제 땅을 도로 찾겠다고 으시대면서 죄 없는 30여 명의 인민들을 마구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인민 군대의 재진공이 시작되자 그 놈은 국방군 장교의 차 뒤꽁무니에 늙은 승냥이처럼 도사리고 앉아 다시 남으로 뛰였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놈은 자기의 옛 땅에서 흙을 벼개 만큼이나 큰 주머니에 파서 가지고 가면서 비록 자기가 살아 생전에 땅을 도루 찾지 못 하면 죽어도 그 흙을 베고 죽겠다고 하였답니다.

대위 동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 놈은 저기 남쪽 땅 어느 곳에서 밤마다 그 흙주머니를 베고 몸을 자반질치며 북에 있는 제 땅을 도로 찾으려고 이를 뿌드득거리며 갈고 있을 것이 아니예요. 정말 이 땅에 계급적 원쑤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총을 놓을 수 없다구 생각해요.

× ×

혜옥이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났다. 그는 불을 담은 눈으로 남녘 하늘을 바라 보고 있었다.

나는 혜옥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실로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원쑤들이 천진란만한 운명을 짓밟고 생활과 지어는 말까지 빼앗은 한 소녀에게 새로운 삶과 노래를 안겨 준 고마운 우리 제도에 대해 생각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남녘 땅에 도사리고 앉은 원쑤들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총창 끝의 《민주주의》

박 정희의 정당인 《민주 공화당》은 자기들을 《자유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로 내세우면서 계엄령을 《되도록 빨리》 해제하기 위해 힘쓰겠노라고 누가 찍어서 묻지도 않는 소리를 늘어 놓았다.

짐작컨대 그들은 남조선 애국 학생들의 6.3 투쟁 이후 2 개월째 끌어 오는 비상 계엄 사태가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데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모양이다.

하기는 《민정 이양》 반 년만에 총칼이 다시 일정에 올랐으니《자유를 사랑》한다는 체면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마디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자유》 타령은 채 끝나기도 전에 밑창이 드러나고 말았다.

《민주 공화당》의 이 수다스러운 성명이 발표된 바로 같은 날 괴뢰 국무 회의에서는 소위 《비상 사태 조성》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오직 전시나 준전시 하에서만 적용하게 되여 있다는 비상 계엄령을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고 비상 계엄이 아니라도 임의로 체포, 구금, 수색, 압수할 수 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나 단체 행동을 탄압할 수 있게끔 현행 계엄령을 가일층 개악하는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이것은 설사 계엄령이 해제된다고 해도 남조선은 사실 상의 계엄 상태 하에 계속 얽매여 있거나 그 위협 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요컨대 입으로는 《자비》를 베풀면서 손에 든 몽둥이는 계속 휘두르자는 수작이다.

무지막지한 군사 불한당들의 정치가 달리 될 수 있으랴.

박 정희 도당은 총창 끝에 《민정》의 보자기를 들씌워 《민주주의》를 가장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으나 개꼬리 3 년 묵어도 황모될 수는 없는 법이다.

실화

탐구의 길

— 청년 기술자 강 진모 동무에 대한 이야기 —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나는 언젠가 옛 시조집에서 이 노래를 읽으면서 우리 원산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강 진모 동무를 생각한 일이 있었다. 어쩐지 나에게는 그 청년의 전 생활 로정이 마치 이 시조가 내포한 진리를 확증해 주는 것만 같았다.

× ×

강 진모 동무가 흥남 화학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원산 가구 공장에 온 것은 1960 년 4월이였다.

그는 맨처음 공장 실험실에서 일하게 됐는데 언제나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품이 매우 탐구심이 강한 청년이라는 것이 첫 눈에도 잘 알렸다.

한 번은 가구나 악기에 칠하는 도료들이 떨어져서 출한 제품들을 칠하지 못 한 일이 있었다. 도장 직장 (제품에 도료를 칠하는 직장)에는 가구와 악기류들이 칠을 못 한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때 강 진모 동무는 새로운 도료를 창안하여 공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침식을 잊어 버리다 싶이 하면서 연구에 골몰하였다. 그는 밤을 밝혀 가며 책을 들춰 보았고 실험 기구들과 씨름질하였다.

《진모 동무, 너무 무리를 하지 말고 좀 쉬라구…그런 연구 사업이야 어디 하루 이틀에 될 일이요?》

공장 사로청 위원장 동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진모 동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글쎄 자리에 누워서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쉬려구 해도 청년 기술자로서의 량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모 동무는 우리 나라에서 조상 때부터 전해 오는 《옻칠》 도료를 해결하려고 90 리'길 마식령에까지 가서 보기만 해도 옻이 오른다는 유독성 나무인 옻나무를 찍어다가 실험해 보기도 하였고 잡관목 껍질을 벗겨다가 실험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 보아도 그런 것들은 이 조그마한 공장에서 공업화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았다.

그의 실험대에는 어느덧 30 종의 식물성 수지와 15 종의 화학 수지 표본이 쌓였건만 어느 것 하나도 시원치 않았다.

어느 날 아침이였다. 그는 아름다운 동해 바다의 해돋이를 바라 보고 있었다. 곱게 물든 아침 노을, 그것은 붉은 색으로부터 점차 감'빛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바로 저렇게 아름다운 도료를 만들어 낼 수는 없을가?)

이 때 문득 그의 머리 속에는 회상기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순간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렇지, 항일 빨찌산들은 지난날 봇나무 껍질에 쌀을 싸서 땅 속에 깊이 묻어 두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봇나무 껍질에야 말로 도료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수지분과 방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안한 진모 동무는 그 날로 동무들

과 함께 왕복 100 리가 넘는 두루산에 가서 봇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실험에 착수하였다.

성냥을 그어 대니 봇나무 껍질은 마치 기름걸레가 타듯이 끄림을 내면서 탔다. 불'길이 미치는 데는 기름이 바글바글 끓었다. 그는 기쁨에 넘쳐 환성을 올렸다.

이 때부터 진모 동무는 그 봇나무 껍질에서 질 좋은 도료를 뽑아 내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모를 것이 있으면 원산 농업 대학에 찾아 가서 학자들과 교원들의 조언도 받았고 멀리 수도에 있는 과학 연구 기관에 수십 통의 편지도 띄웠다.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탐구의 길—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타는 정열과 책임감이 심장에서 끓고 있는 한 무엇인들 못 해 내겠는가!

진모 동무는 수십 차례의 반복 실험을 거쳐 봇나무 껍질을 산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해 내였고 끝내 질 좋은 봇나무 도료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봇나무 락카가 성공되였다.》

이 말은 삽시간에 온 공장에 퍼졌다. 공장 간부들과 동무들은 앞을 다투어 그의 손을 잡아 흔들며 성공을 축하하였다.

한 평범한 화학 기수가 만들어 낸 이 새로운 도료야말로 얼마나 큰 공업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으로 하여 긴장된 공장의 도료 문제는 완전히 풀렸고 얼마 후에는 윤이 번쩍거리게 칠해진 가구들과 악기들이 련'이어 차에 실려 공장 구내를 떠나게 되였다.

× × ×

진모 동무는 자기 사업에서 결코 자만하지 않는 그런 동무이다. 그의 마음은 마치 한 파도가 찾아 들기 전에 련'이어 새 파도가 일어나듯이 언제나 계속 혁신의 사상에 불타고 있다. 그는 참으로 적극성과 진취성이 강한 청년이였다.

그는 봇나무 도료를 창안해 낸 다음 날부터 또다시 새로운 창안에 달라붙었다. 즉 가구를 만들 때 쓰는 새로운 접착제의 창안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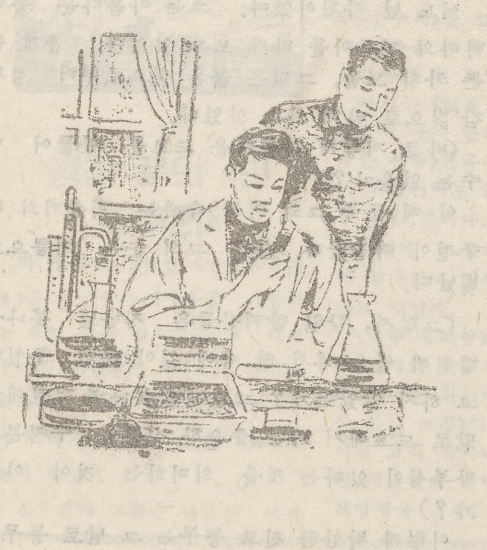
원래 접착제 (애교)는 예로부터 짐승 가죽을 주 원료로 하여 만들었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공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전 공장이 적지 않게 골머리를 앓는 문제였었다.

진모 동무는 이 연구 사업에서 국가에서 자재를 받지 않고 철저히 지방 원료나 폐설물에 의거하기로 하였다. 그는 우선 점'성이 많은 바다풀과 물'고기 껍질 등을 구해다가 실험해 보았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무들로부터 금강군에 사는 한 로인이 옛날에 무슨 풀로 애교를 만들어 먹, 감투, 갓 등을 제작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는 말을 들었다.

원산에서 금강까지는 첩첩 준령을 넘어서 200여 리'길, 그것도 추운 겨울철이였다. 그러나 탐구의 길에서 어찌 험산과 혹한을 두렵다 할 수 있으랴! 그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로인을 찾아 멀리 200 리'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였다. 그는 다시 원산까지 도보로 되돌아 오면서 옛 로인들을 만나 재래식 접착제의 생산 방법을 물어 볼 것을 결심하였다.

철령을 스쳐 넘는 한겨울의 바람은 살을 저며 내는듯 하였다. 그러나 진모 동무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 오르기만 하였다. 그는 마을과 마을들을 돌오면서 속새령을 넘고 철령을 넘었다. 그리하여 약간 한 자료를 얻어 가지고 원산에 되돌아 온 것은 그 해도 다 저물 무렵이였다. 실로 이 기간 그가 도보로 걸은 과학



탐구의 길은 천리'길도 넘을 것이였다.

어느덧 겨울도 지나고 조국의 산야에는 각색 꽃이 피는 봄이 깃들었다. 이렇다 할만 한 소득도 없이 흐르는 세월 앞에서 진모 동무의 가슴은 괴롭기 그지없었다.

(너는 모지랑 호미로 돼기 밭을 뒤지던 화전민의 아들로 태여 나 모밀죽도 못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야 나라의 덕에 전문 학교까지 졸업한 처지가 아닌가! 그래 벌써 지난날을 잊었단 말이냐!)

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 갔다. 공장 당 위원장은 그에게 좀 휴식하면서 몸도 회복하라고 억지로 휴가를 주었다.

그래나 진모 동무는 이런 휴가 기간에 그저 놀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그 길로 멀리 수도 평양에 갔다. 그리고는 매일 같이 과학 연구 기관들과 전문 기술자들을 찾아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물어 보기도 하였고 배우기도 하였다.

드디여 자기의 연구 사업에 대한 그 어떤 실마리를 얻은 그는 휴가 도중에 공장에 되돌아 오고 말았다. 그리고는 다시 연구에 달라붙었다.

이와 같은 피나는 노력과 악전고투를 거듭하면서 진모 동무는 끝내나 새로운 접착제를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어찌 그 뿐이랴! 그 밖에도 진모 동무는 이 접착제를 원료로 하여 공업 용, 식 용, 인화지 용으로 쓰이는 《젤라찡》이란 제품을 만들어냈으며 접착제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폐액으로는 린산 소다를 비롯한 14 종의 귀중한 화학 제품을 만들어 내였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지방 원료로 질 좋은 화학 비료도 만들어 내였다.

이리하여 그는 교문을 나온 후 불과 5 년 동안에 화학 기사로 되였고 국가에 134만여 원의 큰 리익을 주었다.

그리고 나라로부터는 국기 훈장 제 2 급의 표창을 받았다.

지금 그는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강령적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성과를 얻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내닫고 있다.

원산 가구 공장 엄 준 규

생활의 거울

사로청원의 자각성

온천군 원읍리 제 4 작업 반제 사로청원 제 귀녀 동무는 한 가정의 주부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동맹 생활에 충실하며 언제나 일을 찾아서 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는 앞장에 선다.

밀베기가 한창이던 지난 어느 날 저녁이였다. 저녁 준비 때문에 먼저 집으로 돌어 왔던 그는 라지오에서 밤에 비가 오겠다는 일기 예보를 듣자 흠칫 놀랐다. 한것은 밭에 베여 놓은 채 미처 실어 들이지 못 한 밀'단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였다. 세 난가리는 잘 될 밀'단이 밭에 그냥 널린 채 있었다.

(어떻게 할가?)

마을에는 저녁을 지으려고 먼저 들어 온 몇몇 가정 부인들과 늙은이들이 있을 뿐 아직 농장원들은 논판에서 들어 오지 않았다. 모내기 최후 돌격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가 언제 쏟아질 지 모르는데 애써 지어 놓은 귀중한 낟알이 못 먹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니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귀녀 동무는 하던 일'손을 멈추고 그 달음으로 지게를 지고 밀밭으로 달려 갔다. 이미 어두워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500 메터나 떨어진 비탈 밭에서 밀'단을 져 나르자니 여간 벅차지 않았다. 몇 번이나 걸채여 넘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나르고 또 날랐다. 뒤 후에야 사연을 알고 달려 나온 농장원들과 함께 그가 밀'단을 다 운반했을 때에 후두후두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온천군 원읍리 리영자

정열에 대한 이야기

최 종

나는 얼마 전에 영화관에 간 일이 있었다. 이 때 나는 한 소년에게서 《그저 선동원이라 하지 않고 왜 붉은 선동원이라 하나요?》 하는 영화 제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나는 소년에게 그 리유를 해설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으나 그는 끝내 잘 리해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계기로 되여 나는 《<붉은 선동원>이란 과연 어떤 내용이 포괄되고 있는 것일가?》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였다.

붉은 선동원이란 단지 자신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으로 남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람이라는 뜻만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선 가슴 속에 식을 줄 모르는 불'덩이 같은 정열을 지니고 살며 일하며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괄되여 있을 것이다.

《붉은 선동원》이라고 불리우는 리 신자 동무가 바로 그렇다.

막연하게 도시만 동경하여 농촌에 마음을 붙히지 못 하고 있는 철부지 농장원, 내 집 살림과 내 집 터밭, 내 집 돼지부터 생각하는 옛날 개인농 시절의 낡은 사상 잔재가 이따금 로출되는 늙은 농장원, 사람들을 일에 내모는 열성만 있지 농장원들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 갈 줄 모르는 미숙한 작업반장, 이들을 어떻게 옳은 길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고 밤낮으로 불태우는 그의 붉은 마음, 뒤떨어진 농장을 다른 농장에 못지 않게 발전시키고 농장원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해 주어야 하겠다는 열정, 일편 단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지지 옹호하고 그를 끝까지 결사적으로 관철하려는 혁명적 정열…

그는 우선 이것으로 하여 붉은 선동원이란 고귀한 칭호를 받게 되였던 것이다.

리 신자 동무의 이런 이글이글 끓는 불'덩이 같은 혁명적 정열이 과연 어디에서 생겨 난 것일가?

그는 몇 해 전에 벌써 오늘의 리현리를 확신있게 그리였고, 우리 당이 인도하는 우리 나라 농촌의 휘황한 전망을 내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사회주의 농촌의 오늘뿐만 아니라 그의 먼 앞날을 사랑하게 되였으며 거기에 잇닿은 커다란 포부를 지니게 됨으로써 오늘의 생활이 즐겁고 하는 일이 영예롭고 보람차기만 하였던 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열 밤을 새워도 피곤을 몰랐고 어떤 난관이 부닥쳐도 다시 용기를 내여 뚫고 나가는 꺼질 줄도, 식을 줄도 모르는 정열이 솟구쳐 올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열이란 대체 무엇인가?

정열이란 단순히 심정이나 정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한 정력이며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칠 줄 모르는 활동이다.

혁명적 정열은 불타는 마음과 말로써의 토로가 아니라 실천 행동이며 생활에서의 구현이다.

이러한 혁명적 정열은 오직 위대한 목적만이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며 그것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싸우는 것은 청년들의 특징이다. 청년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씩씩하게 싸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모든 곳이 청춘의 정열로 들끓고 혁명적 랑만으로 가득 차고 명랑하고 생기 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이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원대한 포부와 리상, 이것은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 앞날과 직접적으로 련결된 포부이며 리상이다. 여기로부터 우리들의 로력적 열정, 향학열, 애국적 열성 등 온갖 혁명적 정열이 샘솟는 것이다.

낮에 일하여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전등 밑에서 밤 가는 줄 모르고 책과 씨름하는 정열, 1분 1초를 따지며 480 분을 허실없이 바쳐 질 좋은 제품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 보려는 정열, 밤을 밝히며 끼니를 잊으면서도 끝내 창의 고안과 기술 혁신을 이룩하는 정열, 조국의 영예를 위하여 훈련과 련습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려는 정열, 뒤떨어진 동무를 추켜세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정열—이 모든 것은 다 정열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정열은 실로 조국의 앞날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열렬한 동경과 신념에서, 그리고 이런 신념에서 자각되는 자기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생활에서의 보람으로 하여 생기는 것이다.

나는 어떤 기회에 한 청년이 정열은 자기의 온갖 정력을 바치는 데서, 그 어떤 사업에 전심 전력하는 데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과연 온갖 정력을 바치는 것, 전심 전력하는 것이 다 진정한 정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사회와 자신을, 미래와 현재를 옳게 련결시키지 못 하는 정력은 정열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열중이며 값 없이 소비하는 정력의 랑비이다.

돈'벌이와 개인 향락에 열중하는 경우가 그러한 실례로 될 것이다.

이런 열중은 남의 로력을 착취하며 배를 불리면서 할 일이 없이 무료히 세월을 보내는 지주, 자본가들게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간혹 일부 청년들 속에서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버려야 할 잔재인가를 잘 식별하지 못 하고 청춘의 정력을 아무데나 쏟아 바치는 경우가 있다. 위대한 혁명 시대의 청년으로서 천금 같은 청년기를 그처럼 값 없이 소비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혁명적 정열은 또한 파동성이 없이 지속적인 것이 특징적이다. 정열은 끓었다 식었다 하며 순간적으로 일어 나는 격정과는 달리 완강하게 지속되는 정력이기 때문이다. 혁명적 정열은 원대한 포부와 리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의 고조와 퇴조, 환경과 조건에 관계 없이,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에서나 사회주의 건설에서나 한결같이 지속된다.

진정한 정열은 또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정에서 성과에 자만하거나 부닥치는 개개의 실패에 락심할 줄 모르며 대하처럼 끊임없이 면면하고 유유히 흐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침체를 모르는 생기 발랄한 생활과 앙양된 기세, 혁명적 랑만, 혁명적 락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불가피성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또 그 승리를 하루바삐 앞당기려는 열렬한 지향이 약동한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혁명적 정열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우리는 지금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혁명은 청년들에게 끝 없는 정열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열을 바치는 것, 이것이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에 사는 청년들의 의무이며 영예일 것이다.

청년들은 우선 조국의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확신성 있게 내다 보고 그를 앞당기기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원대한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가지지 못할 때 그는 불피코 그날 그날을 어물어물 지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마음에 불이 붙지 못하고 심장의 열이 식게 될 것이다.

× ×

청년들은 원대한 목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투쟁으로써 쟁취할 줄 아는 원칙성과 견결성을 배양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앞길을 가로 막는 난관과 애로, 또 수시로 머리를 추켜드는 자기 자신의 나약성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 혁명 전통 학습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불가피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청년들은 혁명적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하며 체육도 잘 해야 하고 특히 조직 생활에 충실하여야 한다.

혁명적 생활 기풍이 없는 곳에 혁명적 락관이 있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침체와 우울이 지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체력이 튼튼해야 청년들은 의지력과 완강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정열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다.

청년들은 항상 혁명적 정열에 불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붉은 투사가 되자!

용어 해설

리 상

리상이란 사람들이 동경하고 지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투쟁하는 생활의 최고 목적을 말한다.

앞길이 양양하고 혈기와 정열이 왕성한 청년들이 위대한 전망과 높은 리상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 하다.

왜냐하면 위대한 목적을 가질 때만이 어떤 난관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정력을 낳게 되며 생활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 상

공상이란 어떤 일에 대한 강한 지향과 기대, 욕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머리 속에 그려 보는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는 희망적인 상상을 가리켜 말한다.

청춘 시절에 대담하고 슬기로운 공상을 지니는 것은 대단히 귀중하다. 왜냐하면 우리 조국의 휘황 찬란할 래일에 대하여 그려 보며 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벅찬 투쟁 속에서 자기가 뚫고 나아갈 빛나는 앞길에 대하여, 그 속에서 찾게 될 삶의 보람과 행복에 대하여 공상하는 것은 생활에서 굳은 신념을 가지게 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이다.

방문기

청년과 독서



— 국립 중앙 도서관을 찾아서 —

책—그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며 이야기해 주는 것인가! 책은 우리에게 우리 조국의 력사에 대해서, 우리의 위대한 당과 인민이 쌓아 올린 빛나는 혁명 위업에 대해서 가르쳐 주며 인류가 수천 년 간 축적한 풍부한 지식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다.

책은 또한 생활의 문어귀에 들어 선 청년들에게 사물 현상의 복잡한 세계를 열어 주고 깨닫게 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한 진정한 삶의 길, 투쟁의 길을 가르쳐 준다.

때문에 일찌기 박 연암 선생은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까지 하루도 그만 둘 수 없는 것은 오직 글 읽는 일》이라고 하였고 쏘련의 위대한 문호 막심 고리끼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을 사랑하라!》고 소리 높이 웨쳤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이러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얼마나 풍부한 가능성을 혜택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지난 어느 날 국립 중앙 도서관을 방문하고서 더욱 절실히 느꼈다.

웅장하고 화려한 국립 중앙 도서관은 록음이 짙어 가는 해방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7 층에 달하는 그 많은 서고들에는 백 수십만 권의 방대한 책들로 꽉 차 있는데 그 많은 민족 고전들과 력사 문헌들, 사회 과학 서적들과 기술, 문예 서적들이 마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모든 도서들을 보는 우리에게는 문득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살아 오던 억울한 세월이 떠올랐다. 한 권의 책이 없어서 붓으로 베끼고 기름에 절군 책을 온 동네가 돌려 가며 보았고 그것을 다시 아들의 대, 손자의 대에까지 물려 주던 봉건적인 압제의 나날들이며 한 장의 종이와 한 자루의 연필 몽다리조차 없어서 봇나무 껍질에 글을 쓰고 눈우에다 그것을 익혀 보던 1930 년대의 빨찌산 투사들, 구만리 같은 큰 뜻을 가슴에 품고도 한 권의 책 살 돈이 없어서 보람 없이 청춘을 썩이던 우리 부모들의 젊은 시절들, 그 모든 것을 회상하는 우리의 가슴은 행복한 우리 시대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새삼스레 뜨거워졌다.

정숙한 분위기가 풍기는 대소 20여 개의 열람실들은 열람자들로 꽉 차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70 대의 로교수들과 박사들, 기사들과 대학생들, 사무원들과 로동 청년들, 그들은 제각기 자기의 전공 부문과 각자의 취미에 따라 독서에 열중하고 있었다.

고요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오직 책장 번지는 소리만이 사르륵거리며 들릴 뿐이였다.

우리를 안내하던 이 곳 도서관 열람부장 동무의 말에 의하면 매일 평균 2,000 여 명의 독자들이 도서관으로 모여 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의 수가 많다고 하였다.

《수 많은 청년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자습하여 기사, 기수 검정 시험에 합격했거나 창의 고안의 명수로 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을 담당한 평천 산업 건설 사업소의 제 1 직장 사로청 위원장 신태호 동무는 이 도서관에서도 손 꼽히는 열성 독자이다. 그가 지난 1 년 간에 이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은 책 권수만 하여도 무려 200 권을 넘는다고 하였다.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한없는 욕망에 불타 오르고 있는 이 청년은 사회 과학 서적은 물론 기술 서적, 문

예 서적에 이르는 각가지 서적을 탐독하였다.

《나의 생활에서 가장 마음 괴로운 날은 독서 없이 지내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신 태호 동무가 이 곳 열람부장 동무에게 한 말이다.

그는 자습을 통하여 금년도에 기수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책에서 읽은 지식에 기초하여 시 《첫 전투의 새벽》 단막극 《멸망 직전》을 비롯하여 수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직장 써클에서 발표하였다. 직장에서 청년들은 모를 것이 있으면 신 태호 동무를 찾았고 따라서 그는 온 직장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였다.

물론 신 태호 동무의 독서 활동은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도서관으로부터 《용접공》, 《건설자 수첩》, 《조립공》등 수 많은 기술 서적을 빌려다가 직장 내 200여 명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체계적으로 공부시켰다. 그런 결과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은 눈에 띄우게 높아졌으며 용접에 대한 기술 서적을 탐독하던 원 창섭 동무는 새로운 《무부하 용접기》를 창안해 내게까지 되였다.

한 번은 그가 배낭과 보자기에 무엇인가 무겁게 지고, 들고 직장에 왔다. 청년들이 우루루 몰려 들었다. 그런데 배낭과 보자기를 헤치니 거기에는 《공청 생활에 대한 회상》과 《천리 행군》이 250여 권이나 들어 있지 않는가!

책은 청년들의 손과 손을 거치며 애독되였고 그것은 곧 생활에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였다.

그 때는 한창 주건물의 봉수관 굴착 작업이 진행되던 때였다. 지하 10여 메터의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이 어려운 굴착 작업에서 1,211 고지 청년 돌격대원들은 독서 감상회를 열고 《1930 년대의 공청원들처럼 싸우자!》, 《천리 행군의 기세로 일을 다그쳐 나가자!》라고 웨치며 일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작업에서 소기계화를 도입하여 1,050%의 높은 능률을 내기까지 하였다.

독서—그것은 바로 이렇게도 큰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는 열람부장 동무로부터 자습의 방법으로 대학생 수준에 도달한 동대원구역 신흥 진료소의 한 성실 동무며, 저녁마다 퇴근만 하면 의례히 도서관에 달려와 밤 10시까지 공부한다는 경림 리발관의 리 병일 동무며, 독학으로 기사가 된 평남도 도시 설계 연구소의 왕 정엽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 등 수 많은 열성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이 곳 도서관에서는 지방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우편 대출》의 방법도 광범히 적용하고 있었다. 지금 도서관에서 《우편 대출》을 맡아 보고 있는 로 순자 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편 대출>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 주었다.

지난 1월 25일, 이 곳 도서관에는 한 통의 편지가 날아 들었다. 이 도서관과 수천리 떨어진 함북 길주군의 금송 협동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들로부터 온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다.

《…우리는 지금 당의 요구 대로 우리 청년들의 지식 수준을 전반적으로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농촌을 더욱 문명하게 하고 농업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13 명의 청년들로 가까운 년간에 대학 졸업 자격을 얻기 위한 학습조를 조직하였습니다.

수상님의 교시 대로 모두다 기사, 기수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농촌 지방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적어 보내 오니 곧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명; 수학의 특성과 본질에 대하여
원자 구조 학설의 기본
물질 구조론
해석 기하 및 미분학 교과서
……………………
…………………》

글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읽는가? 장차 글 짓는 재주를 풍부히 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차 글을 많이 안다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인가? 아니다. 독서를 하고서 그것의 실용을 모른다면 그것은 학문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며 리용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 지 원)

책은 우편으로 지체 없이 발송되였다. 그 때로부터 금송 협동 농장 13 명의 청년들은 거의 저녁마다 모여 앉았다. 그들은 서로가 선생이 되는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더 아는 동무들이 수준이 낮은 동무들을 가르쳐 주는 학습 방법을 취했다. 그들은 독서를 더 많이 하기 위한 경쟁을 체결했으며 매주 자습한 내용을 가지고 1~2 회 정도로 집체적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얻은 좋은 경험들을 서로 나누군 하였다.

학습에 대한 불'길은 세차게 타올랐다. 그들이 학습에 얼마나 열중했던지 사로청 분조장인 리 원호 동무는 동리 사람들로부터 《하늘을 보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였다. 한 것은 그가 언제나 그 무슨 공식 같은 것을 외우느라고 길을 걸으면서도 머리를 들지 않기 때문이였다.

《물론 농촌에서 일하면서 짬짬이 배우는 우리에게는 애로와 난관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농촌 기술, 문화 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하여 자습의 방법으로도 대학 과정을 마치고야 말 것입니다.》

이 학습조에서 공부하는 박 청이 동무로부터 온 편지에는 이런 확고한 결의가 적혀 있다.

어찌 이런 실례들이 한두 가지만이겠는가!

실로 이 도서관 일'군들과 지방 독자들 사이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실오리들로 얽혀져 있었다. 그들이 보내는 소포들은 멀리 개마고원에서 일하는 지질 탐사대원들의 손에도, 먼 바다 우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손에도 가 닿고 있었다. 지어 이 곳 도서관 일'군들은 한 지방 독자의 학습을 도와 주기 위하여 이름 높은 학자나 작가들과도 구체적인 련계를 맺아 주고 있었다.

지방에 있는 한 독자를 위해 중앙에 있는 도서관에서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 주는 시대, 참말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월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일제 때 우리의 선배들은 한 권의 사회 과학 서적 마저 하늘의 별따기처럼 구하기 힘들였었고 또 설마 구한다고 하여도 일제놈들의 눈을 피해 가며 지하에서 읽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책'더미 우에 앉아서 책타령만 한 일이 없는가!

우리는 나중에 이 도서관의 군중 공작실에 들려 보았다. 500 석의 관람석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차 있는데 화려한 무대 우에서는 한 청년이 독서에서 얻은 경험을 발표하고 있었다.

《…력사적인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수상 동지께서는 우리의 청년 학생들과 소년들이 새 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상 동지의 교시를 명심하고 더 많은 책을 더 정력적으로 읽겠습니다.》

그 청년은 끝으로 자기의 결의를 이렇게 다졌다.

그렇다! 청년 시절에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꽃도 한창 필 무렵에 더 많은 북과 거름을 주어야 훌륭한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닌가!

청년들이여! 우리의 도서관을 사랑하자! 일찌기 인류의 수 많은 영재들도 도서관을 열렬히 사랑했었다. 언제나 도서관에는 열성 독자로서의 그의 고정 좌석이 있었다는 맑스의 청년 시절이며 그 어느 시골에 가더라도 먼저 도서관의 소재지부터 알아 두었다는 레닌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가!

지금 중앙과 지방의 그 모든 도서관들이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대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잠기면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창문마다에 비낀 국립 중앙 도서관을 나섰다.

본사 기자 한 희 만

지식의 원천인 책을 사랑하시라. 지식만이 유익하며 지식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며 그의 로동을 존경하며 인간의 부단하고 위대한 로동의 아름다운 열매를 충심으로 보고 느낄 줄 아는 정신적으로 강하고 정직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게 하여 준다.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는 그리고 모든 물건마다에는 인간의 넋이 들어 있다. 그 고결한 넋이 제일 많이 담긴 것은 과학이며 예술이다. 그 넋을 제일 아름답게 리해하기 쉽게 말해 주는 것이 곧 책이다.

(엠. 고리끼)

표준말과 사투리

박 수 영

작업 총화 모임이 있었다. 반장의 말이 끝나자 동준 동무가 벌떡 일어 섰다.

《금선 동무 울챙이요. 시간을 안 지키는 전 울챙이요.》

동준 동무는 심각한 얼굴을 해 가지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동준 동무의 말이 떨어지자 누군가가 한 마디하였다.

《잘못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점잖지 않게 사람을 울챙이에 비길 건 뭐예요. 참 별난 일도 다 있군요.》

동준 동무는 그만 난처하게 되였다. 서로의 잘못을 충고하고 고쳐 주려고 했는데 뜻밖에 오해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무엇 때문에 생겨 났는가?

그것은 동준 동무가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표준말을 쓰지 않고 남들이 잘 알아 들을 수 없는 함경도 지방의 사투리를 썼기 때문이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옳지 않소》를 《울챙이요》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중요한 교제 수단인 말을 만약 지방에 따라 서로 달리 쓴다면 리해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오해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일상 생활에서 표준말을 쓰는 데 습관되여야 한다.

표준말은 인민 대중의 오랜 언어 실천을 통하여 잘 다듬어지고 규범화된 말이며 전체 조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같이 잘 리해하는 말이다. 학교 교육이나 문예 작품 등에서 모두 표준말에 의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들이 표준말을 쓰는 것은 언어의 문화성을 높임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로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표준말을 잘 쓰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표준 발음법을 잘 지켜야 한다.

표준 발음법이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약속으로 듣기 좋은 하나의 방식 대로 발음하게 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을 잘 지키는 것은 표준말을 쓰는 데서 초보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동무들은 표준 발음을 잘 하지 않고 있다.

례를 들면 《국영 농장》을 《궁영 농장》이라고 하는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무들은 《과학》,《학교》등을 《가학》, 《학교》 혹은 《핵교》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표준 발음법의 요구 대로 하면 《근로자》는 《글로자》로 발음하고 《로동 청년》은 《노동 청년》으로, 《천리마》는 《철리마》로 《청산리》는 《청살리》로 발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 말들을 《근노자》,《로동 청년》, 《천니마》, 《청산리》 등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 한다.

사투리를 쓰면 언어 문화의 발전에도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듣기에도 거북하고 남들이 잘 알아 들을 수도 없다.

례를 들면 《그 양복이 아주 싸다》고 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달리 리해되기도 한다. 표준말에서는 값이 눅은 것을 《싸다》고 하는데 평북 지방의 사투리에서는 값이 비싼 것을 《싸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례는 그 밖에도 허다하다.

즉 평안도 지방에서는 표준말의 《후추》를 《고추》라고 하며 표준말의 《고추》를 《당추》라고 한다. 이 지방에서는 《더기》,《덩심》,《덩거장》,《둏다》, 《가티》(표준 발음법으로는 《갗이》로 발음해야 한다.)등 사투리들이 흔히 쓰이고 있다. 또한 표준말에서는 밥과 함께 먹는 부식물을 통털어서 《반찬》이라고 하는데 황해도 지방에서는 물'고기 같은 것 만을 《반찬》이라고 한다. 그리고 표준말의 《어머니》를 지방에 따라 《오만》, 《오매》, 《제매》라고도 한다.

표준말의 《갔습니까?》를 함경 북도와 량강도 지방에서는 《갔지비?》 함경 북도 북부 지방(회령, 온성, 종성, 경원, 경흥, 부령, 라진 등)에서는 《갔슴둥?》,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 지방에서는 《갔슴마?》, 황해 남북도 지방에서는 《갔지러?》, 《갔시까?》등 사투리들을 쓰고 있다.

한 가지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니 어떻게 그 뜻을 잘 알 수 있겠는가?

하나 하나의 말 뿐만 아니라 말투까지도 지방에 따라 각가지다.

《디과가 혹캐 맛 있수다》(평북 지방 사투리로서 고구마가 참 맛 있다는 말)

《그 아재 질루 째멉슴메》(함경도 지방의 사투리로서 그 아가씨 아주 까다롭다는 말)

《아재비 언제 왔슴둥?》(함북 지방 사투리로서 아주머니 언제 왔는가 하는 말)

이런 말들이 한데 뒤섞이면 우리가 서로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방적 말투까지도 철저히 고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조선어를 더욱 아름답게 정화해야 하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언어의 문화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청년들은 일상 생활에서 표준말을 적극 쓰는 습성을 키우도록 힘써야 한다.

용어 해설

테제

독일어에서 온 외래어로서 론제(論題), 론강(論綱)이라는 뜻을 가진다. 즉 중요한 사회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전개한 강령적인 리론 저술 혹은 연설 등을 말한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 《4월 테제》로 불리는, 당 중앙 위원회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의 김 일성 동지의 연설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그리고 금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들은 조성된 혁명 발전 단계에서 사회 정치적으로 제기되는 리론 문제에 대한 강령적 답변으로 된다.

전략적 문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면 전략이란 무엇인가.

전략이란 일정한 혁명 단계에 있어서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위하여 공격 방향을 규정하며 혁명 력량을 배치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가리켜 말한다. 례컨대 사회주의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공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느 계급을 고립시키며 누구와 동맹할 것인가 하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투쟁 방침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회주의 혁명의 전 기간에 걸쳐 일관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로동 계급의 가장 주되는 동맹군에 관한 문제인 농민 문제는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 문제로 된다.

거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의거해야 할 중심적인 단위, 혹은 근거지를 말한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의 군은 일련의 복잡성과 특히 분산성을 가지는 농촌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크기와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농촌 문제 해결에서 의거하여야 할 중요한 단위이다. 사실상 우리의 군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며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적 근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군을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며 그들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정치적 거점, 경제적 거점, 문화적 거점이라고 한다.

편지를 어떻게 쓰는것이 좋은가



편지는 상대 편에게 전하려는 사연이나 묻고 싶은 일,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쓰는 《소식의 글》이라 할 수 있다.

《편지에 문안》이란 속담까지 있는 것처럼 편지의 내용은 우선 상대 편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편지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며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편지는 그 형식과 목적에 따라

—문안 편지, 축하 편지, 위문 편지, 보고 형식의 편지, 년하장, 초청장 등과

—공개 서한, 공문 형식의 편지, 전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편지는 어떤 형식의 것이든지 또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이든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체계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편지의 머리 인사'말

—전하거나 물으려는 기본 내용

—끝 맺는 인사'말

편지의 첫머리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계절에 대한 이야기

—상대 편의 안부에 대한 물음

—상대 편의 사업과 관련되는 형편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으로 그 시기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일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자기의 건강이나 사업 형편

물론 이러한 내용도 그 편지의 목적에 따라 아주 간단히 쓸 수 있고 또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말하면 편지에서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필요한 례절을 갖춘 내용이 서술되여야 한다. 안부를 묻는 경우에는 손우 사람으로부터 차례로 쓰는 것이 좋다.

기본 내용의 부분에서는 전하는 용건이나 묻는 내용을 선명하게 써야 한다. 날'자, 기간, 장소, 시간, 묻는 내용, 관계되는 사람 이름 등을 특별히 명백히 써야 한다.

편지의 글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경우와 달라서 의문이 생긴 점을 그 자리에서 곧 물어 볼 수 없기 때문에 묻거나 해명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끝 맺는 부분에서는 간단한 인사'말, 날'자, 이름 등을 차례로 적는 것이 보통 경우이다.

편지지를 펴 놓고 첫머리 부분을 쓸 때 흔히 상대 편을 부르는 말을 맨 먼저 쓰게 된다. 이전에는 편지 글에서 쓰는 호칭어가 따로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가족과 친척을 부르는 보통말로 쓰게 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례를 들면

아버님께 드립니다. 아버님께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어머님 전, 할아버지께, 고모님께 드립니다.

순철 동무에게, 그리운 누님께,

사랑하는 인수야!

정다운 3 작업반 동무들에게,

위원장 동지 앞 등으로 쓸 수 있다.

이러한 부르는 말 다음에는 계절 이야기와 함께 문안의 말을 쓴다.

특별한 용건이나 긴급한 일이 없는 단순한 문안 편지에서는 자기 지방의 계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나 농사 형편, 상대 편의 건강 형편에 대하여 친밀감 있게 쓸 수 있다.

례를 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계절이 바뀌는 요사이 어머님 귀중한 옥체 건강하십니까?

—가로수의 록음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동수 동지의 건강한 몸을 그려 보며 이 편지를 씁니다.

—아침 저녁으로 퍼그나 서늘해졌습니다. 요사이 가을걷이도 마감 고비에 들어 서 퍽 분주하시리라 믿습니다.

—새 봄의 생기 있는 흙 냄새가 가슴 흐뭇하도록 풍겨 오는 이 때 뜨락또르 발동 소리로 농장 마을을 뒤흔들어 놓는 동수 동무의 씩씩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붓을 들었소.

나이의 차이가 많은 손우 사람이나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머리'말을 장황하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편지의 글은 어떤 격식을 차린 글과도 달라서 친근감과 존경하는 진실한 심정을 자아 내도록 되여야 하며 알기 쉽게 써야 한다.

특히 엽서 편지에는 용지의 크기가 제한되여 있는 만큼 미리 잘 구상하여 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을 순서 있게 써야 한다.

또한 사사로운 편지의 글은 신문의 론설체의 문장이나 보고문, 공문 등의 문체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부드러운 말로 서로 만나 이야기할 때와 같이 써야 한다.

편지의 글이 그 어떤 론설 문체와 같이 되면 딱딱하여 오히려 절절한 정을 덜어 버릴 수 있다.

편지의 기본 내용을 쓴 다음 마감에 쓰는 말은 상대 편이 손우 사람인가, 손아래 사람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대개는 길지 않는 인사'말로 끝 맺는 것이 좋다.

상대 편의 사업의 성과를 축하하거나 건강에 대하여 인사의 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며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부탁을 덧붙여 쓸 수도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인사》, 《날'자》, 《이름》의 세 가지가 편지의 마감에 쓰이는 글이다.

례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간단히 소식을 전하고 붓을 놓습니다.

—오늘은 이만 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후'날 다시 쓰기로 하고 이만 그칩니다.

—평양역을 떠나면서.

—휴양소 구락부에서 들려 오는 천리마 기수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날'자는 공식적인 편지에서는 년월일을 다 쓰는 것이 좋고 사사로운 편지에서는 월일만 쓰거나 아무 날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다.

이름은 《00 올림, 00 로부터, 0 00 드림》 등과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편지 본문에 쓰는 인사'말과 날'자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이 좋다.

……안녕히 계십시오

1964년 월 일

김 인수 올림

엽서나 편지 봉투의 주소, 성명을 쓰는 데도 일정한 규범이 있다.

편지 봉투의 주소, 성명은 특히 통신원이 똑똑히 알아 볼 수 있게 쓰되 가로 쓰도록 할 것이다.

맨 우에 상대 편의 주소를 쓰고 그보다 1~2 글'자 안 쪽에 들어 와서 역시 상대 편의 성명을 쓰고 이어서 상대 편을 높여 이르는 말이나 부르는 말을 쓴다.

이름 다음에는

0 00 전, 0 00 동지에게

0 00 선생님께 등 말을 쓴다.

봉투 뒤'면에는 편지를 보내는 편의 주소 성명을 쓴다. (네모 봉투의 경우에는 앞면에 쓴다.)

부모나 형제 간, 가까운 친척의 손우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흔히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쓴다.

편지는 용지를 세로 쓰고 글'줄은 가로 써야 하며 엽서는 세로 놓고 가로 쓸 수도 있지만 가로 놓고 가로 쓰는 것이 좋다.

편지는 내용 뿐만 아니라 봉투의 글씨 한 자에도 상대 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뜻이 나타나도록 깨끗이 써야 한다.



공산당원의 심장의 기록

우리의 조직, 우리의 비밀을 목숨으로 고수해야 하오

권 영 벽

혁명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 할 것 없소. 만일 우리가 적들에게 체포되면 적들은 모진 고문과 갖은 흉계를 다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비밀을 알아 내려고 할 것이요. 우리는 혁명의 투지로, 사장 동지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하오. 적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소. 만일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사업을 검토하여야 하오. 내가 혁명에 얼마나 충실했던가?를—바로 이것이 혁명가인 우리의 임무요.

압록강이여! 조국 땅이여!

마 동 희

조국의 강—정겨운 압록강이여
내 기어코 다시 너를 건너 돌아 오리라.
조국 땅에 광명이 깃들고
태양이 비치는 날
다시 너를 건느리라!
오늘은 너도 슬퍼서인지 말이 없다만
그 때에는 너도 즐거운 노래를 목청껏 부르리라!

압록강이여
조국 땅이여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부디 잘 있으라!
다시 만날 때까지!

(압록강을 건느면서 부른 노래)

충성을 버릴 수 없다

방 지 민

나는 지주를 몹시 미워하며, 자본가를 미워하며, 일체 매국 군벌들을 미워한다. 나는 진정으로 나의 계급적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의 당을 사랑하며 우리의 중화 민족을 사랑한다. 계급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당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나는 좁고도 습기 찬 초막에서 살지언정 그 화려한 층'집을 부러워 하지 않으며, 볼을 찌르는 잡곡과 야채 뿌리를 먹을지언정 진수성찬의 양요리를 부러워 하지 않으며, 돼지우리나 개 굴 같은 데서 잘지언정 푹신한 고급 침대를 부러워 하지는 않는다. 하루에 열 여섯 시간씩 고달프게 일할지언정 한가한 것을 부러워 하지는 않는다. 차라리 곤궁하게 살지언정 부유한 것을 부러워 하지는 않는다. 주림과 추위를 두려워 하지 않고 위험과 곤난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굴욕이나 고통이나 모든 괴로운 생활이라도 나는 그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결심을 조금도 동요시킬 수 없으며 반대로 나의 의지를 더욱 련마시켜 준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지만 당을 버릴 수 없으며, 계급을 버릴 수 없으며, 혁명 사업을 버릴 수 없다.

나의 생명이 지속되는 한 나는 그것들을 위하여 사업을 하여야 한다.

* 방 지민은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혁명 투쟁 당시 강서성 동북부 로농 민주 정부 책임자였고 로농 홍군 제 10 군단 정치 위원회 주석이였다.
1935년 국민당 반동들에게 체포되여 학살되였다.

당이여, 너에게 감사를 드린다

쥬리앵 아피오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운 수천 수만 명의 투사를 학살한 히틀러 사형리들은 어제 나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피에 굶주린 이런 폭군에게, 세계 각국 인민들을 전쟁의 불'길 속에 몰아 넣고 전쟁 판에서 자기 나라 인민들을 전멸시키고 있는 이런 폭군들에게 내가 다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며칠이 지나면 나는 곧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는 나의 위대한 공산당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하려고 합니다.

—너에게 감사를 드린다. 당이여! 너에게 감사를 드린다. 청년 동맹이여! 그대들은 나를 계몽했고 지식으로써 나를 무장시켰습니다. 이 지식들은 나를 나의 인민에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공산당에 의하여 비로소 나의 일생은 맹목적으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레닌—쓰딸린 당에 참가한 그날부터 전쟁과 빈궁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제도의 멸망을 촉진시키기에 모든 력량을 바친 것을 깊은 만족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 인민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쟁 속에서 내가 불란서의 다른 젊은 아들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제도를(이 사회 제도는 불란서에 사회적 해방을 줄 것입니다) 건설하는 기초 공사에 한 장의 벽돌을 쌓았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지내 온 일생을 회고할 때 내가 걸어 온 길이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당이 우리들에게 지시한 길이였다는 것을 자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공산당 만세!
불란서 공산주의 청년 동맹 만세!

(옥중에서 보낸 편지 중에서)

* 쥬리앵 아피오는 불란서 공산주의 청년 동맹의 지도자 중의한 사람이며 자유 사수와 유격대 대위였다. 그는 1943년 9월 히틀러 도당에게 학살되였다.

고원한 리상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얀니스 찌찔로니스

나의 어머님에게

저는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접자기 들으셔서 눈물을 흘리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로도 우리의 최후의 키스를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눈물과 신음 소리가 영웅의 죽음을 뒤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저는 인민의 사업을 위하여 영웅답게 죽겠습니다!

자유의 날이 찾아 올 때, 종들이 기쁨을, 승리를 알려 줄 때, 그 때는 어머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이것은 나의 아들, 나의 얀니스가 종을 울리는 것이다…》라고, 밤은 지새여 갑니다. 곧 새벽이 될 것입니다. 자유의 바람은 일고, 우뢰 소리는 더욱더 처절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우뢰가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저는 감당해 내겠습니다. 만일 제가 자유를 위하여 죽을 운명이라면—저는 죽겠습니다. 이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일 것입니다.

몇 분이 지나면 해가 올라 올 것입니다. 그러면 새 날은 찬연한 빛을 먼저 당신들 모두들, 자연과 생명을 비쳐 줄 것입니다. 불타는 그 빛은 차거운 대지와 우리의 새로운 무덤을 덥힐 것입니다…

고원한 리상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 줄 안 사람은 죽을 줄도 알 것입니다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 얀니스는 교원이며 희랍 통일 청년 동맹의 지도 일'군의 한 사람으로서 히틀러 도당을 반대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용감하게 싸웠다.
1948년 아테네 반동 정부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이야기

그가 부르는 노래



김 기 덕

북한강 골짜기에는 여느 날과 같이 봄 안개를 서서히 걷으며 아침 해'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리 소위는 예상했던 대로 대대장의 엄한 호출을 받았다.

그는 아침 일찌감치 소대부를 나와 대대 본부로 가는 뒤'산 고개'길에 올라 섰다.

강을 사이에 둔 분계선 북쪽에서는 씩씩하고도 우렁찬 노래 소리가 들려 왔다.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정의와 평화 위해 싸우는 전사
……

노래 소리는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에로 메아리쳐 가며 울려 퍼졌다.

처음 듣는 노래 소리는 아니였으나 이 날따라 그 노래 소리는 리 소위의 가슴을 뒤설레게 했다.

리 소위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1950년 8월, 그 때 리 소위는 겨우 열 살 난 철부지였다.

그 해 여름, 그의 어머니는 장 보러 갔다가 양키놈의 짚차에 치워 모진 상처를 입었었다. 왼 팔이 부러진 데다가 허벅다리에서는 군데군데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것이였다. 그러나 집이 가난한 탓으로 그의 어머니는 병원 문어귀조차 못 갔었다.

전쟁이 일어 나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 한 부대는 그 때 리 소위네 마을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어머니를 성의껏 치료해 주었다. 그 때만 해도 인민 군대라고 하면 《사람 눈 빼고 귀를 베여 내는 악한》이란 악선전만 들어 오던터라 온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기만 했다.

리 소위도 그 땐 인민 군대가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별 하나를 단 스물 네댓 난 군의가 간호원을 앞세우고 와서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친절히 타일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고향에 있어요.

……

우린 인민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야요…》

그는 몹시 상냥했다.

그는 매일과 같이 그의 어머니를 치료해 주고 갔으며 리 소위에게도 인민군 행진곡이며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배워 주군 했다.

마을에 든 인민군 부대는 온 마을을 새벽마다 비를 들고 깨끗이 쓸어 주었으며 집집에 기울어진 울바자를 바로 세워 주군 했다.

실로 인민들 앞에서 호령질 하고 재물을 마구 빼앗아 가는 《국방군》들과는 영 딴판이였다.

그래서 마을 로인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감탄을 금치 못 했다.

《인민 군대란 참 우리 백성을 위한 군대가 옳소! 모두 내 아들딸 같은 사람들이요!》

리 소위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런 인민 군대들이 지금 분계선 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입고 있는 장교복이 더욱 쑥스럽게만 보였다.

《도대체 내가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있단 말인가? 동족끼리 싸우라고?…제길…》

리 소위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맥빠진 발'길을 터벅터벅 옮겨 놓고 있었다. 실로 가기 싫은 걸음이였다.

오늘은 그에게 가장 가혹한 징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날이였다.

이미 미군 고문 잭슨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철직 선고가 내려졌으니 말이였다.

그는 서글프게 며칠 전 일을 돌이켜 보았다.

3일 전에 있은 《멸공》이라고 이름 붙인 《춘기 종합 훈련》에서 리 소위는 과실 아닌 과실을 범했다.

전날 밤 고된 강제 훈련을 이겨 내지 못 해 허덕이던 두 명의 사병이 도망 간 것으로 단단히 문제가 서고 있는 데다가 그 날 그의 소대는 명령에 지적된 전투 시간을 지키지 못 했다.

방어 진연을 돌파한 그의 소대는 2천 메터 앞에 있는 《백골 고지》를 30 분 이내에 점령하고 중대적인 전투를 엄호하도록 되여 있었다.

2천 메터 구간에는 강이 두 개나 있어서 30 분 간에는 도저히 그 고지에 오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최종 도착 시간을 고려해 줄 것을 제기했으나 미군 고문 잭슨과 대대장 놈은 호된 욕만 했다.

《명령에 무슨 구실이야 짜식!》

그는 《명령》을 집행하는 수 밖에 없었다.

리 소위 소대원들은 철조망과 지뢰가 있는 지점을 에돌아서 죽기로 내달렸다. 사병들이 거진 반주검이 되여 고지에 다달은 때는 벌써 《명령》에 지적된 시간보다 20 분이나 뒤늦은 다음이였다.

이것은 총적 작전 조직이 잘못 된 것이였으나 미군 고문 잭슨이란 놈은 훈련을 총화하는 마당에서 그 모든 책임을 리 소위에게 뒤집어 씌우며 눈을 부라렸다.

《이런 거북이 군댄 세계 군사사 상에 없습네다… 이런 군대 가지곤 <자유 세계> 지킬 수 없습네다.…의식적 태공입네다. 태공!

대대장! 난 고문으로서 리 소위의 철직을 건의하오, 철직! 철직!》

그는 경련을 일으킨 놈처럼 철직이라는 소리를 되씹었다.

리 소위는 언덕'길 아래 대대장실에 거진 당도할 때까지 근간에 있은 일을 돌이켜 보며 내뱉듯 혼자'말로 중얼거리였다.

《철직시키면 시키라지… 도대체 이 놈 군댄 주인이 없는 군대란 말야… 제길…》

리 소위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그 모든 징벌을 각오한 비상한 결심을 가다듬고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짜식! 뭘하고 밥 먹는 거야, 엉! 베따위가 장교복 입고 있으니… 개자식…》

리 소위는 들어 서자'바람으로 따귀를 대여섯 개 맞았다. 귀'구멍이 멍멍해 오도록 호되게 맞은 그의 량 볼엔 대뜸 손'가락 자리가 울긋불긋 솟아 났다.

그는 분을 참을 수 없었다.

《장애물이 있는 2천 메터 전방 고지를 30 분에 점령한다는 것은 기동 부대에서도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뭐? 이 짜식 함부로 대답질 해!》

대대장 놈은 다음 순간 이'발을 사려 물고 또다시 호되게 따귀를 때렸다.

그리고 표독하게 소리를 질렀다.

《임마! 그리 잘 알아서 도망병을 또 둘씩이나 냈느냐 엉! 사병들은 <분계선의 달'밤> (조국 통일의 념원을 담은 노래)만 부르고… 그를 묵인하고 있는 네 놈의 사상부터 믿을 수 없다. <국군> 장교 자리엔 네 놈 있을 자리가 없다!》

리 소위에게 있어서 이런 억울한 모욕과 폭압이 가해진 것은 물론 이 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그는 오히려 그 저주로운 생활이 끝장 나는 것이 더 좋았다.

리 소위는 그 날로 선임 하사에게 인계했다.

× ×

리 소위가 철직되여 간다는 것은 사병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슬픈 일이였다. 2 년이나 함께 지내 왔지만 그는 사병들에게 기합 한 번 가한 적이 없었다.

혹 사병들이 잘못 하는 일이 있어서 하사들이 방망이를 들려고 해도 그는 그것은 일제 놈의 야만적 잔재라고 꾸짖으면서 오히려 하사들을 욕하군 했다.

사병들이 양키놈들에게 억울한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는 그 길로 미군 장교놈들에게 들이 대군 했다. 그것이 더욱 미군 고문 잭슨의 비위를 거슬렸는지 모른다.

그러한 리 소위를 잃은 것은 사병들의 금후 생활에서 더욱 혹독한 지옥살이가 온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병들은 슬픔을 나눌 길 없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리 소위의 송별연을 비밀리에 조직했다.

몇 번 잔이 돈 후 사병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하소연했다.

《소위님! 우린 인제부터 또 등에 칠성판을 지고 살게 됐어요…이 놈 지옥살이…소위님만 계셔도 또 나을텐데…》

리 소위는 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키더니 사병들의 하소연을 막았다.

《아니다! 나 혼자나 여기 남아서 너희들이 개천대를 면한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것이 아니다.》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부정했다.

그리고 다음 말을 이었다.

《이 놈 군대 미국에 코 꿰운 송아지란 말야, 코 꿰운 송아지! 그러기에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야.

보아라! 우리 대대의 주인은 고문 잭슨이란 놈이고 이 국군의 주인은 미군이야! 미군!

통수권도 거기에 있고 우린 고용병이야! 고용병!》

리 소위는 다음 순간 취'기가 올라 마구 웨치기 시작했다.

《사병들아! 우리가 진실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싸우는 민족의 군대, 인민의 군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의 량 볼에서는 두 줄기의 눈물이 마구 흘러 내렸다. 그는 알지 못할 노래를 코'소리로 흥얼거렸다. 사병들은 어리둥절했다. 그 곡은 분계선 넘에서 들려 오던 노래의 곡이였다.

그것은 《국군》은 진정한 인민의 군대가 되여야 한다는 그의 인간 량심의 뜨거운 호소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이냐? 《씨》냐?

7월 8일, 남조선 《국회》에서는 한 야당 대표가 《시국 대책에 관한 연설》을 하는 가운데서 박 정희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씨》라고 불렀다고 하여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사이에 하루 종일 옥신각신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박 정희씨가 무어냐, 왜 대통령의 관칭을 붙이지 않느냐?고 여당에서 시비를 걸면 야당은 야당 대로

—씨라고 부른 것이 무엇이 잘못 됐냐?고 반박하는 식으로.

할 일이 없으면 《2. 4 파동》 당시처럼 의사당 안에서 맥주 한 병씩 옆에 놓고 바둑이나 둘 노릇이지 《10만 선량》이요, 뭐요 하면서 《당내의 정객》을 자처하는 자들이 대수롭지도 않은 칭호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 입쌔름만 벌리고 있는 것은 가소롭다고나 할가.

칭호 문제가 말'밥에 올랐으니 말이지 박 정희에 대해 말한다면 그는 총칼로 정권을 가로채고 협잡 선거로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 썼으니 물론 진짜 《대통령》일 수 없고 그렇다고 군사 불한당 출신인 그가 양복 바지를 걸쳤다고 신사가 될 수도 없으니 또한 《씨》도 아닌 것만은 틀림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를 무엇으로 불러야 할가가 문제인데 들려 오는 말에 의하면 그는 《미국식》을 매우 좋아 한다고 하니 미국 사회의 전통적 관례에 따라 《미스터》로 부르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모 정계 인사와 부자 관계를 맺았다고 하니 일본식 풍습에 따라 《상》으로 부르는 것이 안성 받침일 것이다.

원래 《미스터》요, 뭐요, 무슨 《상》이요 하는 따위들은 다 매국 역적이였은즉 결국 박 정희 또한 역적이라.

역적의 말로는 인민의 심판'대로 멸망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을 택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사로청원의 의무 해설 (1)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는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면서 동맹의 새로운 규약을 채택하였다.

새 규약에는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강령적 교시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청년 동맹의 투쟁 목표와 과업, 동맹 조직들과 동맹원들의 조직적 활동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보다 높은 혁명적 요구가 반영되여 있다.

매개 사로청원들은 새로운 규약 상 원칙과 요구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실천 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동맹 생활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

편집부는 사로청원들의 규약 학습과 규약 상 의무 실행에 방조를 주기 위하여 본 호부터 규약 중에서 동맹원의 의무 부문을 한 조항씩 해설한다.

× ×

동맹원의 의무를 조항 별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동맹원의 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동맹원의 의무란 모든 사로청원들이 일상적인 동맹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이 자기 앞에 내세운 투쟁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자면 그의 매개 성원인 모든 사로청원들이 같은 사상, 같은 목적, 하나의 조직적 규범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동맹 조직은 더욱 공고화되고 사업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 과업을 통하여 사로청원 자신들이 조직 사상적으로 단련되며 자각적인 혁명 투사로 자라 나게 된다. 동맹원의 의무란 바로 동맹원들의 자각적인 행동 규범을 통일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로청원들이 동맹 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규약 상 의무를 철저히 실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동맹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 이것이 사로청원들의 동맹 생활이다.

1, 동맹원은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

동맹원의 의무 첫째 조항에는 사로청원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 하는 투쟁 목적이 밝혀지고 있다.

사로청원의 투쟁 목적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이 내세운 목적으로부터 출발한다.

오늘 사로청 앞에 나서고 있는 당면한 혁명 과업 중의 하나는 분렬된 조국을 하루 속히 통일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로청원은 우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직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지 못 하였으며 조국의 남쪽 절반 땅은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반봉건 사회로 남아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 테로 통치 하에서 참을 수 없는 기아와 빈궁, 천대와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수 많은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직업과 배움의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검거, 투옥, 학살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강요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전'적으로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로부터 초래된 조국의 분렬에 있다.

그러므로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남조선

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하루 속히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들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이며 따라서 우리 청년들과 사로청원들의 혁명적 의무로 된다.

조국의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체의 힘에 의하여, 그리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침을 견지하여 왔으며 또 견지하고 있다.

매개 사로청원들은 우리 당의 이러한 정당한 립장과 방침에 근거하여 조국 통일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로청원은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청년들은 조국 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주구들을 타도하며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세게,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사로청원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사로청원은 언제 어데서나 한시도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어려운 처지를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각오를 굳게 가져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경제 건설을 더욱 촉진하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고무적 힘으로 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로청원은 우리 당의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하여 자기가 맡은 혁명 초소에 굳건히 서서 남조선 형제들을 돕는 마음으로 한 덩어리의 석탄, 한 그람의 철과 쌀, 한 오리의 실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반미 구국 투쟁에 더욱 광범히 떨쳐 나서도록 고무 추동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사로청원들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 청년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사로청원은 나라의 통일과 함께 조국 땅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는 인류의 절실한 념원이다. 바로 이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오래 동안 피 흘려 싸웠으며 또 오늘도 조선 인민의 선두에 서서 성스러운 위업에로 그들을 옳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에 있어서 사회 발전의 선진 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청년들—《새 세대들에게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전통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부과되여 있다.》 (김 일성)

그러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사로청원은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

사로청원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계급적 관점과 혁명적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당이 내세운 종국적 투쟁 목표와 자신들에게 맡겨진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항상 깊이 명심하고 전진 도상에 부닥치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로청원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학설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사상적 무기인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깊이 체득하여 우리 당의 사상 의지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를 자기의 사상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의 계급 의식을 부단히 높이며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과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로청원은 혁명을 가로 막으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며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으로서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수백만 대중의 높은 혁명 의식과 함께 그들의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적 로동을 통하여 이미 공화국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닦아 놓았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경제 토대는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사로청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데 자기의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사로청원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며 자기가 일하는 모든 초소에서 부과된 혁명 과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사로청원은 누구나 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며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풍부히 소유하며 자기가 맡은 일에 정통하며 고상한 도덕 품성을 배양하며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여야 한다.

사로청원은 또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아는 동무는 모르는 동무를 가르쳐 주며 앞선 동무는 뒤떨어진 동무를 돕고 이끌면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혁명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매개 사로청원은 이 장엄한 투쟁에서 혁명적 열의와 창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곧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미래를 앞당기는 길이다.

청년생활 소사전

생물 축전지

얼마 전에 과학계에서는 일부 박테리아들이 활동할 때에 전기를 일으키는 것을 리용하는 《생물 축전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생물 축전지》의 구조는 아주 간단한데 작은 쌀알들과 효모 또는 곡물 곰팡이 속의 박테리아를 혼합하여 두 개의 가소물로 만든 작은 그릇에 넣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 《생물 축전지》가 되는 것이다. 이 축전지의 두 극은 동테프와 알미늄 테프로 되여 있다.

이런 생물 축전지는 아주 오래 동안 쓸 수 있다고 한다.

1 %

우리가 현재 1 년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소비하는 전체 소비 전력의 1%만 절약하면 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늘여 놓고도 남을 천을 짤 수 있는 전력을 얻게 된다.

전기를 절약한다는 것은 곧 물을 절약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만약 60만 세대의 가정에서 하루에 쓸 데 없이 6 시간씩 불을 켜 놓고 잔다면 1 년 동안에 수풍 언제의 물을 약 1억 8천 286만 톤이나 그냥 랑비하는 것으로 된다.

아침 저녁 우리의 가정들에서 2 시간씩만 전기를 절약하여도 그것만으로 1 년에 약 62만 5천 메터의 천을 짜고도 10만 6천 키로의 기름을 더 짤 수 있는 전기를 얻게 된다.

우리 나라 바다의 너비와 깊이

우리 나라 바다의 총 면적은 약 166만여 평방 키로 메터로서 륙지 면적의 근 8 배나 된다.

동해는 그 면적이 104만 평방 키로 메터이고 깊이는 평균 2~3 천 메터, 제일 깊은 곳은 4,226 메터이다.

남해는 면적이 약 10만 평방 키로 메터이고 깊이는 150 메터 내외이다.

서해는 면적이 52만 평방 키로 메터이고 깊이는 평균 100 메터 이하의 얕은 바다이다.

태양, 지구, 달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평균 1 억 4천 9백만 키로 메터인데 이것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400 배에 해당한다.

태양의 직경은 지구 직경 (12,740 km)의 109 배이며 그의 체적은 지구의 130만 배, 무게는 지구의 33만 2천 배이다.

태양 표면의 온도는 6,000도이고 내부 온도는 무려 2천만 도에 달한다.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38만 4 천 키로 메터이다. 달의 직경은 3,473 키로 메터이고 그 면적은 아세아주의 면적과 거의 같다. 달의 인력은 지구 인력의 6 분의 1이다.

열성자들을 위하여

초급 단체 총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로 홍 재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의 최고 기관은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의 총회이다.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 총회의 목적은 해당 단체 앞에 제기된 중요한 문제들을 전체 사로청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총회에서 토의되는 문제의 내용과 수행 방도를 매개 동맹원들에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교양하며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의 총회는 규약 상 요구와 상급 동맹 단체의 지시,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 사업 계획, 동맹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1 개월에 1 회 이상 해당 위원회가 소집한다.

총회를 실속 있게 운영하자면 회의 준비를 잘 하여야 한다.

그러면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의 총회 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총회에서 토의할 문제를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 총회에서 토의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시기 제기되는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및 상급 동맹 단체들의 결정 지시를 집행할 데 대한 문제.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 위원회의 사업 총화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의 집행 기관을 선거할 데 대한 문제.

—사로청원들의 동맹 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동맹 생활을 총화할 데 대한 문제.

—사로청원들의 입당 보증 문제.

—동맹 내 규률을 강화하며 규률을 위반한 동맹원들에게 책벌을 적용하거나 해제할 데 대한 문제.

—사로청원들 속에서 학습 기풍을 확립하고 당 정책 교양,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며 학습 정형을 총화할 데 대한 문제.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의 월 사업 계획을 토의 비준할 데 대한 문제 등.

그러나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들이 각이한 부문에 조직되여 있고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총회의 토의 문제를 우에서 지적한 내용들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매개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 위원회들은 매 시기 자기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총회의 토의 문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총회에서 토의할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한 회의에서 많은 문제들을 토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동맹원들에게 총회에 참가할 준비를 철저히 시켜야 한다.

총회의 성과 여부는 동맹원들의 준비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 왜냐 하면 총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동맹원 대중의 의사에 의하여 토의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 위원회는 매개 동맹원들로 하여금 총회에서 토의할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회의에 참가하여 건설적이며 창발적인 의견을 제기하도록 준비를 잘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 위원회는 동맹원들에게 총회에서 토의될 문제와 회의에서 달성하려는 목적, 그 해결이 가지는 의의 등을 깊이 침투시키며 회의 날'자와 장소, 시간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동맹원들을 총회에 참가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은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의 구체적 실정, 총회에서 토의하려고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해설 담화, 집체 학습과 토론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례를 들면 동맹원 수가 적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경우에는 초급 단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직접 동맹원들을 대상하여 할 수 있고 그와 반면에 지역적으로 분산되여 있거나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동맹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지역 별, 교대 별로 위원들을 파견하여 준비시킬 수도 있다.

총회에 제출할 보고를 잘 준비하여야 한다.

보고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준비하되 총회에서 취급되는 문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부위원장, 위원 혹은 해당 부문 사업을 잘 아는 동맹원들에게 준비시킬 수도 있다.

보고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류의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당 정책의 본질과 그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이 명확히 제기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만 동맹원들이 회의에서 달성하려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적극 제기할 수 있다.

—보고에는 위원들과 동맹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 따라서 보고 준비를 잘 하자면 몇 사람의 국한된 위원들에게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광범한 열성자들과의 협의회를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광범히 들어야 한다.

—보고는 동맹원들을 교양할 수 있도록 되여야 한다. 때문에 보고에는 동맹원들의 활동 과정에서 거둔 성과들과 긍정적 경험들이 개괄되여야 하며 발로된 결함들에 대한 분석과 그 시정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여야 한다.

—보고는 동맹원들이 충분히 리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써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여야 한다.

보고는 토의되는 문제의 내용과 동맹원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 정형 총화,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 위원회의 사업 총화, 학습 총화 등과 같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사업을 총화할 때의 보고는 나타난 우결함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으며 과업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제시된 당 정책의 집행 대책을 토의할 때의 보고는 그 기본 사상과 내용을 해설한 다음 자체의 실정과 결부시켜 그를 어떻게 집행하겠는가 하는 실천적 대책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고는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들이 자기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다.

결정서 (집행 계획서) 초안을 잘 준비하여야 한다.

초급 단체(분초급 단체)의 결정서 초안은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이고 간단한 문제를 토의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

결정서에는 동맹원들의 창발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여야 하며 제기된 매개 문제를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며 그 집행 정형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총화한다는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여야 한다. 또한 결정서 초안에는 많은 문제들을 복잡하게 예견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간명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결정서 초안이 준비된 다음에는 그것을 초급 단체 위원회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총회의 준비 정형에 대해서는 해당 당 세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아 더욱 완성하여야 한다.

고대 조선의 문화

김 병 건

우리 나라 고대 국가로서 첫 문명을 이룩한 나라는 고조선이며 이를 계승하면서 한 때 서로 병립해 일어 난 나라가 부여국과 진국이다.

그 가운데서 고조선은 기원 전 5~4 세기에 국가로 형성되여 기원 전 3 세기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서 왕검성을 서울로 정하고 대릉하 류역으로부터 발해만을 돌아 료서, 료동 지역을 포괄하였으며 동쪽으로는 송화강의 상류 일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료하의 상류, 송화강 류역에서 기원 전 3 세기 중엽에 형성된 부여국은 고조선으로부터 일정한 정치,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의 장춘 북쪽 이통하 류역의 농안을 서울로 정하고 있었다.

기원 전 2 세기에 형성된 진국은 오늘의 직산(충청 남도)을 중심으로 조선 반도 일대에 자리 잡은 나라로서 고조선과 긴밀한 경제, 문화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매개 나라들의 종족을 보면 고조선은 예족이 살고 있었으며 부여는 맥족, 진국은 한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개 종족 집단들의 갈래였으며 문화도 각기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많은 공통성을 가진 고대 조선 종족의 고유한 문화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최초의 강대한 고대 국가이며 동방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의 하나였던 고조선의 문화는 자주적이며 독창적인 전통과 바탕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으며 자기의 우수한 문화로써 린근 국가, 종족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직도 철 제조 기술을 모르고 있던 기원 전 3 세기에 고조선 인민들은 련철 기술이 대단히 발전한 철기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조선 사람들은 도끼, 기타 농기구들을 비롯한 철기들을 주물로 제조하였으며 어떤 것은 강철을 사용하였고 도검, 갑옷 등은 철을 단야함으로써 필요한 강도와 탄성을 보장하였었다.

또한 청동 야금 기술도 비상하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동과 석(錫) 혹은 연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백동질 제품들을 광범히 만들어 썼다.

당시 사용하였던 좁은 놋단검, 좁은 놋창끝, 놋거울, 마구류, 수레, 장식품 등 청동기들은 내식성이 강하여 오늘까지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도구와 무기, 장식품 등은 동시에 훌륭한 공예품으로 되여 고조선 사람들의 성격, 사상 감정, 미적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고조선의 잔줄 무늬 거울 가운데는 걸작품들이 적지 않다. 둥근 백동질 거울 뒤'면 가장 자리에 단면 반월형의 테를 두르고 그 안에 수백의 삼각형과 수천의 잔줄로 이루어진 무늬가 돋혀 있는데 한 점의 티끌만한 오점도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늬는 기하학적 도안으로서도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걸작품들이다.

또한 도안에 그림을 가미한 걸작품의 하나는 금동제 말관자이다.

표면에 극히 가는 선으로 구름 같은 무늬를 새겼고 초롱 무늬를 좌우 대칭으로 그리고는 그 사이 사이에 내닫는 말을 새겼는데 그 기법이 우수하고 자유 분망하며 도안 구도가 기묘하여 마치도 내닫는 산 말을 방불케 한다.

고조선 문화의 우수성은 문학 작품 창작에서도 력력히 찾아 볼 수 있다.

고조선 인민들이 창작한 문학 유산들 가운데서 오늘까지 전해 오는 한 편의 시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 강물을 건느지 마시라고
그토록 애태워 당부했건만
그대! 드디여 빠져 죽었구나.
님은 어디로! 이 몸은 어쩔고!

이 노래는 기원 전 3~2 세기 고조선의 녀류 시인이며 음악가 려옥이가 읊은 노래이다. 어느 날 새벽에 려옥이의 남편인 배'사공 곽리자고 (霍里子高)가 배를 저어 나루를 건늘 때 별안간 백발을 풀어 헤친 한 로인이 나타나 미친듯 술'병을 들고 강물에 뛰여 들어 강을 건느기 시작하였다. 이 때 뒤쫓아 달려 온 로인의 안해가 남편을 만류하려고 급히 물 속에 뛰여 들었으나 미처 손 쓸 사이도 없이 검푸른 물'결이 로인을 삼켜 버렸다. 남편을 잃은 로파는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공후(악기의 일종)를 부둥켜 안고 슬픈 감정을 노래 부르더니 마침내 자기도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이 비참한 광경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은 곽리자고는 그 날 집으로 돌아 오자 안해에게 늙은 부부의 비참한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동정하여 눈물을 머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려옥 역시 치솟는 슬픔을 막을 길이 없어 로파가 부르던 노래를 상기하여 공후를 뜯어 가면서 노래를 짓기 위해 애썼다. 그리하여 마침내 려옥은 로파의 비통한 심정을 세련된 형식의 가사 속에 담아 아름다운 공후의 음향에 맞추어 가요를 만들었던 것이다.

고상한 인도주의, 풍부한 인간성과 인간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담은 서정적이면서도 처량한 이 《공후의 노래》는 고조선 이래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공후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당시 이름 없는 로파가 공후를 탈 줄 알았고 한갖 사공의 안해가 가사를 지어 노래를 부를 정도로 고조선 문화가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전된 문화를 가진 고조선에서는 일찍부터 철학, 력사, 천문학, 지리, 력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의 고대 국가의 하나인 진국도 높은 문화를 창조한 나라로서 철제 도구, 무기류와 떠고리, 방울 등 각종 우수한 일용품, 장식품, 마구류 등을 만들었다. 진국 사람들은 선박 제조 기술, 항해술에도 능하여 멀리 일본 렬도에도 활발히 진출하였으며 그 곳에 자기의 선진 문화를 전파하였다.

또한 부여 인민들도 락천적이였으며 풍부한 내용을 담은 신화 전설의 창조자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년말에 《영고(迎鼓)》라는 제천(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며칠씩 계속되는 큰 잔치를 베풀고 노래와 춤을 즐기였다. 진국도 5월 파종과 10월 추수가 끝나면 온 나라가 제천 행사를 하였었다.

당시 이들이 춘 춤은 오늘의 농악무와 비슷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으로도 당시 인민들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조선의 고유한 민족 무용이 유구함을 엿볼 수 있다.

악기로서는 현악기인 거문고가 널리 사용되였으며 8수형(八手形) 방울을 비롯하여 각종 형태의 방울, 북, 피리 등을 사용하여 흥취 있게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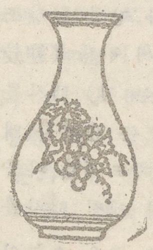
예술을 이렇듯 즐긴 고대 조선 사람들은 또한 례의가 밝고 겸양의 미덕을 가졌으며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였다.

그리하여 고대 중국 사람들은 조선을 《례의가 밝은 나라》라고 높이 찬양하였다.

모두 례의 도덕을 지킬 줄 알아서 로인들과 웃사람들에게 길을 양보하였으며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데도 일정한 례식 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서로 손을 들어 인사하면서 자리를 양보하였다. 녀자들은 도덕 규범을 잘 지키고 음식은 깨끗한 변두와 조두 등 그릇에 담아 먹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벌써 2천 수백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높은 과학, 문화, 예술을 소유하였으며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 (王儉城)은 동방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졌다.

우리 고대 국가들의 문화는 린근 국가와 지역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바 특히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서 조선 계통 이주민들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였다. 바로 기원 전 3 세기 경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야요이식 문화》 초'중기의 벼 농사, 방직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선진적 기술과 문화의 각 분야의 성과들이 이들에 의하여 직접 그 곳에서 창조되고 전파되였다.





잘못 선택한 장소

7월 16일 새벽 3시 미 제 7 사단에서는 때 아닌 총격전이 벌어졌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명의 미군 헌병과 한 명의 미군 하사관이 탄 찌프차가 7 사단 본부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미군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 엠 14 보총으로 그들을 쏘아 눕이고 쏜살 같이 도망을 치는데 이 때 권총을 든 또 한 명의 미군이 나타났다.

도망치던 양키는 다시 총질을 해서 그를 거꾸러뜨렸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나타난 사나이가 쓸어지면서 권총을 발사하여 도주자를 살해했다.

이리 하여 순식 간에 다섯 명의 양키가 거꾸러졌다.

그것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서부 활극의 한 장면 그대로였다는 것.

박 정희는 상전의 비위를 거슬릴까바 그 진상에 대하여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시간, 등장 인물, 장소로 미루어 보아 그 배후에는 원한이나 모종 관계가 얽혀 있지 않으면 부대 창고에서 훔쳐 낸 물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알륵이 빚어낸 사건이란 것은 뻔하다.

20 세기의 야만들인 양키들이 서로 아웅다웅 격투를 벌리다가 거꾸러지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나 신성한 조국 강토가 악한들의 란무장으로 화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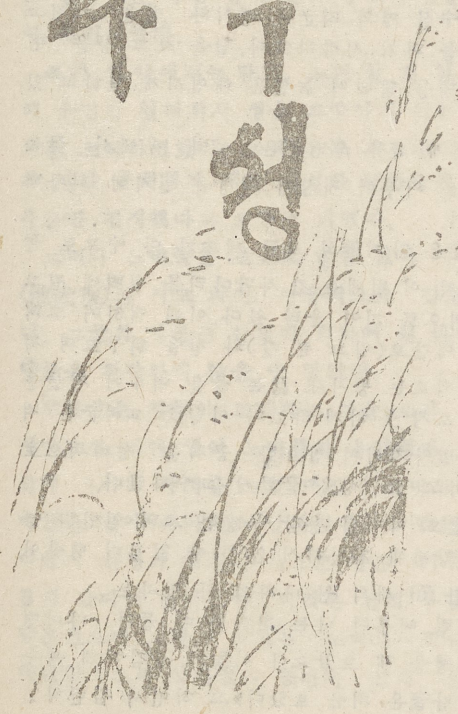
아메리카의 야만 족속들은 텍사스나 오하이오의 제 소굴로 물아 가서 활극을 놀겠으면 놀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들의 연기는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다.

우리 나라 산성의 력사

구주성과 흥주성

김 유 방





구주성 (龜州城)

구주성은 평안 북도 구성군 구성읍에 있다.

구주성은 고려 인민이 서 희 장군의 지도 하에 《거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994년에 쌓은 산성이다.

이 산성은 굴곡이 많은 자연 지형을 리용하여 쌓은 성으로서 적과의 대전에서 매우 유리하였다. 또한 이 성 밑에는 은밀한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전투 때에는 그 통로를 빠져서 외부에 있는 아군과의 비밀 련락을 보장할 수 있었고 불의에 원쑤들의 배후에 나타나 적들을 뒤로부터 기습할 수도 있었다.

이렇듯 우리 나라 북방의 중요 성새인 구주성은 지난날 한 번도 외래 침략자들에게 함락된 일이 없는 철벽의 요새였다.

1010년 11월에 거란 왕 성종은 직접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우리 나라를 침략해 왔다. 불의에 침입한 적들은 일시 국내 깊이까지 들어 올 수 있었다. 놈들은 도처에서 방화와 략탈을 일삼으며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

다. 그러나 적들은 이르는 곳 마다에서 고려 인민들의 영웅적 항전에 부딪쳤다. 이리하여 거만한 침략자들도 끝내 진격을 단념하고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패주하던 적군의 선봉이 구주성에 도달하였을 때였다. 이 곳을 지키고 있던 고려군은 거짓 패하는 척 하면서 놈들을 높은 고개로 유인하였다. 이 때 높은 고개에서는 미리 매복하고 있던 김 숙흥 장군의 부대가 일시에 함성을 지르며 적들을 기습하였다.

적들은 사처에서 가을 바람에 나무'잎 떨어지듯 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단번에 적병 1만여 명을 살상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였다. 이 번엔 거란 왕 성종이 직접 거느린 주력 부대가 다시 구주성에 도착하였다. 량군 사이에는 10 일 동안이나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 가렬 처절한 전투에서 우리 군사들은 용감 무쌍하게 싸웠다. 그리하여 적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 인민 3만여 명을 적의 손에서 구출하였고 수 많은 군수품을 로획하였다.

이것이 구주성이 조국 방어의 성새로서 거대한 역할을 논 첫 번째 전투였다.

그러나 이러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 한 거란 침략자들은 1018년 10월에 10만 명을 동원하여 또다시 고려에 침입하였다.

거란군의 주력 부대가 구주에 도달하자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고려군은 애국적 명장 강 감찬 장군의 지휘 밑에 적들을 맞받아 용감하게 싸웠다. 바로 이 때 서울을 방어하던 김 종현 장군의 부대가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여 구주에 도착하였으므로 고려군은 앞뒤에서 적을 협공하게 되였다.

때마침 남풍이 세차게 불어 와 고려군에게 매우 유리한 형세가 지어졌다.

강 감찬 장군은 때를 놓지지 않고 총 공격 명령을 내렸다. 고려군은 사기 충천하여 맹공격을 가하여 적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다. 이 전투에서 적군 10만 명 중 살아 돌아 간 자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이 력사의 한 페지를 빛나게 장식 하고 있는 유명한 구주 대첩인 것이다.

구주성은 또한 원 나라 침략 군대가 우리 나라를 침입하여 왔을 때에도 원수들에게 무리 죽음을 안겨 주었다.

1231년 8월에 수만 명의 원 나라 침략 군대는 압록강을 건너 구주성을 공격해 왔다.

이 때 성안의 고려 군대는 불과 1천 명도 못 되였다. 그러나 박 서 장군의 지휘 하에 고려 군대는 애국적 인민들과 함께 영용하게 싸웠다.

원 나라 군대는 여러 겹으로 구주성을 포위하고 주야로 공격하였다.

놈들은 간악하게도 불'길을 세차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기름을 바른 나무를 성 밑에 쌓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고려군은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놈들의 지혜를 한 수 뛰여 넘어 물에 흙을 섞어 던지면서 그 불을 껐다.

그러자 원 나라 침략군은 15 문의 대포로 쇠'덩어리와 돌을 발사하여 성문과 성벽을 파괴하려고 하였다. 이 때 아군 역시 대포로 응전하여 적의 포를 침묵시키면서 파손된 성문과 성벽들을 제때에 수리하군 하였다. 실로 성내 군사들의 투쟁은 눈부신 것이였다.

하루는 적들이 루차대상(바퀴 달린 큰 궤)을 굴려 성벽에 붙이였다. 그 대상 속에 들어 있던 수십 명의 적군은 괭이와 삽을 가지고 성 밑을 파기 시작하였다. 활을 쏘고 창을 던져도 대상 밑에서 놈들은 태연하게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고려군은 성벽 우에서 끓는 쇠'물을 퍼부어 대상과 적병을 일시에 화장해 버렸다.

적들은 자기들의 모든 계교가 다 수포로 돌아 가자 이 번에는 긴 사닥다리를 성벽에 걸고 발악적으로 기여 올라 왔다. 이에 대하여 고려군은 대간포(길고 큰 칼)와 창을 휘두르며 적을 무찌르는 동시에 끓는 물을 퍼부어 적들을 올라 오지 못 하게 하였다. 이렇듯 고려군은 적들의 발악적이며 집요한 공격을 성과적으로 격퇴하고 구주성을 끝끝내 고수하였다.

적들도 이처럼 용감 무쌍한 고려 인민의 영웅적 항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발이 성성한 70 세의 원 나라의 한 병사는

《어릴 때부터 나는 천하를 다 돌아 다니면서 전쟁을 해 보았으나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감탄하였다 한다.

적군은 무려 30 일 동안이나 가렬한 공격을 들이 댔으나 끝내 구주성을 점령하지 못 한 채 도망치고 말았다.

유서 깊은 구주성은 실로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상징한 영웅의 성새이다.

충주성 (忠州城)

충주성은 원 나라 침략을 물리치는 중요한 성새의 하나였다. 충주는 경상, 전라, 경기도 삼도의 분기점이며 특히 경상도 입구에 있는 군사 전략 상 중요한 지점이다. 만일 충주성이 점령 당하면 삼남 지방이 모두 원 나라 침략자들의 강점 하에 들어 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려 인민들은 충주성을 사수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적들도 이 성을 빼앗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1231년 겨울에 제 1 차로 침입해 온 원 나라 침략군은 국내 깊이 들어 와 충주성을 겹겹이 포위하였다.

초기 성안에서는 량반, 노비 할 것 없이 전체 주민이 일떠서서 성을 고수하기 위한 방어군을 조직하였었다. 그 후 전투 과정에서 형세가 약간 불리하게 되자 비겁한 량반들은 자기 목숨만 건지겠다고 도망쳐 버렸다.

그러나 노비들은 조금도 굴함 없이 지 광수(池光秀)의 지도 하에 영웅적으로 항전하였다. 그들의 영웅적 항전에 의하여 원 나라 침략군은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량반들은 적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자 다시 성안으로 기여 들어 노비들의 용감성과 애국심에 대하여 자책을 느낄 대신에 노비의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날뛰였다. 그 구실은 노비들이 관청의 재물과 은으로 만든 기구들을 훔쳐 갔다는 것이였다. 이것은 전혀 무근거한 날조였으며 그들의 의도는 노비의 지도자를 처단함으로써 량반들이 종전과 같이 성안의 령도권을 장악하자는 것이였다.

이 흉계를 간파한 노비들은 자기들의 정당 방위를 위하여 다시금 칼을 들고 일어 났으며 음모를 꾸민 량반들을 습격 처단하였다.

그러나 원 나라 침략군을 반대하는 충주성의 전투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였다.

1253년에 원 나라 침략자들은 또다시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충주성을 포위한 일이 있었다.

원 나라 군대를 보자 평시에 호령만 하던 성안의 량반들은 또다시 도망쳐 버렸다. 량반들의 비겁성에도 불구하고 성내의 인민들은 원쑤 격멸에로 한 사람 같이 일떠섰다. 그들은 주로 노비와 농민이였으며 그 지도자는 유명한 김 윤후(金 允候)였다.

김 윤후는 일찌기 원 나라의 제 2 차 침입때 처인성(경기도 룡인)에 있는 적군 사령부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적장 살레탑을 한 활에 쏘아 죽이고 고려군의 방어전을 승리에로 이끈 용감한 사람이였다. 그는 고려 인민이 존경하는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였었다.

적아 간의 필사적인 공방전이 벌어졌다. 적들은 련속 무리 죽음을 당하면서도 뱀 같이 집요하게 덤벼 들었고 주야로 대포를 쏘았다.

70여 일이 지나자 성안에서는 식량이 거의 떨어지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쳐 왔다. 이 때 김 윤후는 최후의 돌격을 명령하였다. 이 결사전에서도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은 바로 노비들이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애국 투쟁에 일떠선 노비들 앞에 원 나라 군대는 혼비 백산이 되였다. 적군의 시체는 온 들을 덮었으며 그의 피는 강물 같이 흘렀다.

원 나라 군대는 하는 수 없이 또 충주성을 단념하고 창황히 퇴각하고 말았다.

충주성이야 말로 누가 조국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이며 누가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용감하고 견결한 가를 말해 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다.

력사 이야기

청해 장군-장 보고

리 지 영

장 보고(張保皐)는 9 세기 전반기 신라의 해군 지휘관으로서 그의 명성은 널리 국외에까지 알려지고 있었다.

그는 오래동안 청해진(靑海鎭—오늘의 전라도 완도)에서 외적들의 침략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여 청해 장군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받았었다.

장 보고의 원래 이름은 궁복이다.

장 보고는 어릴 때부터 부친의 뒤를 따라 훌륭한 무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무예를 닦았다. 그는 기마술에 능하고 창격술이 또한 훌륭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냥할 때면 언제나 남보다 많은 짐승을 잡았으며 그가 질풍처럼 말을 달려 한번 싸홈터에 나서기만 하면 감히 그를 당해내는 적수가 없었다.

이렇게 용감한 장 보고에게는 일찌기 의형제를 맺은 정 년이라는 극친한 동무가 있었다. 그 역시 장 보고에 못지 않게 무술에 능란한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손 우인 장 보고를 언제나 형으로 섬겼다.

장 보고는 청년 시절에 큰 뜻을 품고 정 년과 함께 당 나라에 건너 갔는데 그들의 명성은 널리 당 나라 명에까지 알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용감한 이 두 청년은 서주 지방 주둔 부대의 소장(小將)이라는 지위에까지 오른 일이 있었다.

당시 당 나라의 황제 자리를 노리고 수십만의 대군을 일으켜 중국 천지에서 날뛰던 대군벌 두목들도 장 보고와 정 년의 용맹 앞에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 보고는 만리 타국에 가서 출세도 하고 명성을 높이 떨치면서 부귀를 누릴 수 있게 되였지만 항상 그리운 고향과 사랑하는 조국을 잊을 수가 없었다. 더우기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해적 무리들에게 랍치되여 당 나라에 팔려 온 적지 않은 조국 동포들이 참혹한 노예 생활을 강요 당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 자기 인민을 략탈하고 모욕하는 무리에 대한 격분과 울분으로 가슴 불태우던 장 보고는 그 이상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격분을 금치 못 하여 단연 군직을 버리고 귀국하여 당 나라의 해적들을 자기의 손으로 소탕할 것을 결심하였다.

828 년에 장 보고가 조국으로 돌아 와 보니 나라의 형편은 당 나라에 있을 때 듣고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소란하고 어지러웠다.

자연 재해가 연방 생겨서 농사는 폐농 지경이였고 연해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

어제는 저 마을의 어느 집 외아들이 붙들려 갔고 또 오늘은 이 촌락의 그 어느 부녀자가 붙잡혀 갔소… 하는 등 외국의 해적 무리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발광하고 있는데도 소위 관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못 본체 하고 있는 것이였다.

《해적선을 물리쳐 주오!》

《내 아들, 내 남편을 찾아 주오!》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인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들이 구천에까지 사무치였다.

신라의 해안은 해적들이 탐무하는 무서운 지옥으로 변하였고 섬 사람들은 한 시도 발편 잠을 잘 수 없게 되였다.

장 보고는 이 비참한 나라의 형편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싸울 사람이 그 누구인가? 내 한 몸을 서슴없이 나라를 위해 바치자—

이렇게 비장한 결의를 다진 장 보고는 곧 흥덕왕(신라 42 대 왕)을 찾아 가 《중국에는 우리 신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는 데가 많으니 치욕이 이 이상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청해를 수비하여 도적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을 잡아 가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제의하였다.

해적들의 략탈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당 나라에 갔던 사절들의 입을 통하여 장 보고의 재능과 용맹을 들어서 알고 있던 차라 곧 그를 청해 대사로 임명하고 군사 만 명을 주어 해상과 연해의 수비와 통제를 담당케 하였다.

장 보고는 그 해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하여 해군 근거지를 창설하고 내습하는 해적 무리를 무자비하게 족쳤다.

그는 우선 군사들에게 활 쏘기와 철창 쓰기, 헤염질, 노 젓기 등 훈련을 시키는 한편 부근의 무역선, 운반선, 어선들을 모두 한 곳에 집결시키여 그들이 원하는 항로 별로 여러 개의 편대를 짰다. 그리고 군사 만 명 중 5천 명은 열 명 내지 백 명씩 조를 짜서 편대에 각각 배치하고 나타나는 해적들을 맞받아 나가 족치게 함으로써 모든 배들이 근심 걱정 없이 항해하도록 호위하였다.

한편 당 나라를 래왕하는 무역선들에도 군사를 배치하여 해적들에게 랍치되여 당 나라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고국 사람들을 찾아 오도록 임무를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 5천 명은 해안선을 수비하게 하고 인민들의 영농 사업도 도와 주게 하였다.

장 보고 자신은 《청해 대사 장 보고》라고 쓴 붉은 기'발을 큰 배에다 높이 달고 온 바다를 순회하면서 침습하는 해적들을 잡아 족치였으며 달아 나는 도적떼들을 따라 나가 철저히 격멸 소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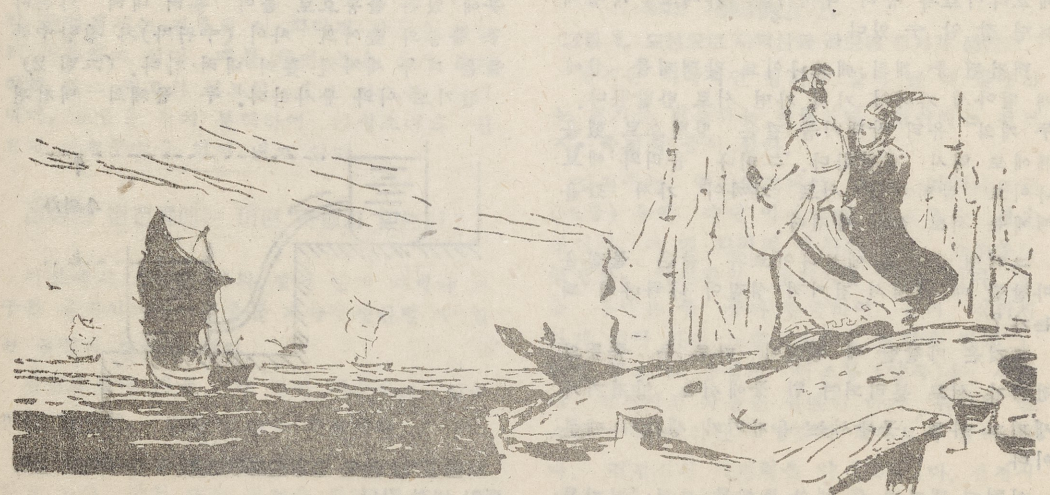
그리고 당 나라와 일본의 해적을 생포하였을 때에는 응당한 징벌을 가했다.

이리하여 해적떼들은 《청해 대사 장 보고》 장군을 바다의 《염라 대왕》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신라 연해에 나타나지 못 하였으며 멀리 황해 일대에까지 얼씬하지 못 하였다.

신라 연해의 인민들은 마음 놓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신라의 배들은 다시금 멀리 해외 무역의 길에 오르게 되였다.

이 때로부터 청해진은 서해와 남해를 련결하는 신라의 중요한 항구로 되였다.

장 보고는 그 후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에까지 진출하여 제해권을 장악하고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의형제인 정 년도 당 나라에 머물러 있다가 귀국하여 장 보고의 지도 하에 청해진에서 외세의 침입을 방비하는 데 적극 참가하였다.



전기와 우리생활

전기에 대한 기초 지식

리 규 설

전기란 어떤 것인가?

유리 막대기를 명주 천에 문지르면 유리 막대기는 가벼운 물체를 잡아 당긴다. 또 에보나이트(만년필'대와 같은 것)를 털에 문질러도 역시 가벼운 물체를 잡아 당긴다.

또한 세루로이드로 만든 빗으로 마른 머리를 빗으면 빠작빠작 하는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만일 이 빗을 가벼운 종이 쪼각 근처에 가져 가면 빗이 종이 쪼각들을 잡아 당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 물체가 전기를 띠였다, 또는 물체가 대전 (전기를 띤 것)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원인은 물체를 마찰한 데 있다.

유리와 에보나이트를 마른 명주 또는 마른 가죽 같은 것에 마찰했을 때 유리 막대기에 생긴 전기를 양전기, 에보나이트에 생긴 전기를 음전기라고 한다.

이와 같이 물체들을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전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같은 종류로 대전된 두 물체는 서로 반발하며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는 서로 잡아 당긴다. 이는 에보나이트와 유리 막대기를 가지고 시험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전된 두 개의 에보나이트 막대기를 실에 매 달아서 가까이 가져 가면 서로 반발한다. 두 개의 유리 막대기를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에도 역시 반발한다. 그러나 유리와 에보나이트 막대기를 서로 가까이 가져 갔을 때에는 서로 잡아 당긴다.

그러면 유리나 에보나이트와 같은 물질을 마찰할 때 어째서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마찰할 때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전기가 서로 분리되여 한 곳에서는 양전기가 생기고 다른 곳에서는 음전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전된 두 개의 물체를 도선 (전기를 잘 통과시키는 물체, 례를 들면 동선이나 알미늄선 같은 것)으로 련결하면 더 많이 대전된 물체로부터 적게 대전된 물체에로 전기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기의 이동을 전류라고 부른다. 전류는 《암페아》라는 단위로 측정하며 A로써 표시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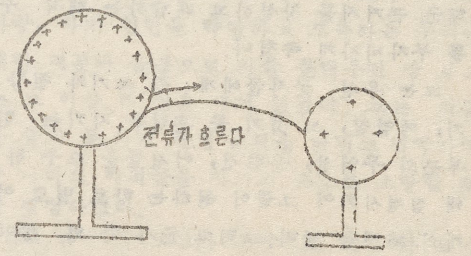


그림 1. 많이 대전된 물체로부터 적게 대전된 물체로 전류가 흐른다.

이것은 서로 높이가 다른 곳에 설치되여 있는 두 개의 물통에 호스를 련결했을 때 일어 나는 현상과 비교할 수 있다.

이 때 높은 곳에 설치된 물통으로부터 낮은 곳에 있는 물통으로 물이 흘러 내려 가는바 두 물통의 높이의 차이 (수위차)가 심할수록 물은 더욱 세차게 흘러 내려 간다. (그림 2)

전기도 이와 류사하다. 두 물체의 대전된 정도의 차이가 심할수록 전류는 더 세차게 흐른다. 이 때 물체의 대전된 정도의 차이를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부른다. 이 전위차가 앞에서 고찰한 수위차와 류사하다. 그를 《볼트》 (문'자 표시는V)라는 단위로써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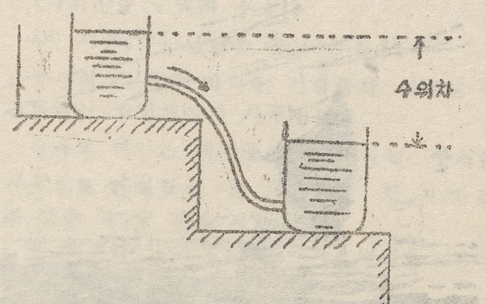


그림 2. 높은 물통으로부터 낮은 물통으로 물이 흘러 내려 간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220V 또는 110V이고 동력에 사용하는 전압은 380V 또는 220V이다.

전기란 무엇인가를 더욱 잘 알기 위하여 전류가 도선으로 흐를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보자.

그의 작용은 첫째로 전류가 도선으로 흐르면 그 도선에 열이 발생한다. 전구에 전류가 흐르면 3,000도 가까운 열을 내면서 불이 켜진다. 전기 용접, 전기 곤로, 전기 다리미 등은 다 전류의 이 작용을 리용한 것이다.

이 때 전류가 더 많이 흐를수록 또 도선의 저항이 클수록(니크롬선 같은 것) 발생되는 열은 더 많아진다.

둘째로, 철심에 도선을 여러 번 감고 그 도선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그것은 자석과 마찬가지로 철 쪼각을 잡아 당긴다. 이와 같은 작용을 전류의 자기(磁氣) 작용이라고 부른다. 전동기가 돌아 가고 발전기에서 전기를 발생하고 스피카에서 말'소리가 나는 것 등 모든 전기 기계나 전기 기구는 전류의 자기 작용을 리용한 것이다.

세째로, 어떤 물질에 전류가 흐르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그 물질을 변하게 만든다. 화학 공업에서는 전류의 이 화학적 작용을 광범히 리용하고 있다. 례를 들면 물은 전기 분해하여 질소 비료의 원료인 수소 가스를 얻어 내며, 소금을 전기 분해하여 가성소다의 원료인 나트륨염을 얻어 내고 있다.

전류의 원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전기 기계나 기구를 움직이려면 전류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원천이 있어야 한다.

전원으로써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전기, 건전지 또는 축전지다.

발전기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하여 보자. 강철 또는 철편을 잡아 당기는 성질을 가진 물체를 자석이라고 한다.

자석에는 두 개 끝이 있는데 이것을 자석 극 즉 자극이라고 한다.

자석의 두 개 극 사이에는 자석의 힘이 작용한다. 자석의 힘은 무수한 선(줄) 모양으로 작용한다.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선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상한 것)을 자력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자력선을 도선으로써 움직이면서 선을 끊을 때에 도선에는 언제나 전기가 생긴다.

이 때 도선에 생기는 기전력(물체에 전기가 일어 나는 힘인바 이것은 보통 전압으로 표시한다.)의 크기는 도선이 움직이면서 자력선을 더 많이 끊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즉 자력선의 세기와 도선이 움직이는 속도와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기는 더 세게 발생한다. 또한 기전력의 방향은 도선이 자력선을 끊으면서 움직이는 방향이 변하면 기전력의 방향도 변한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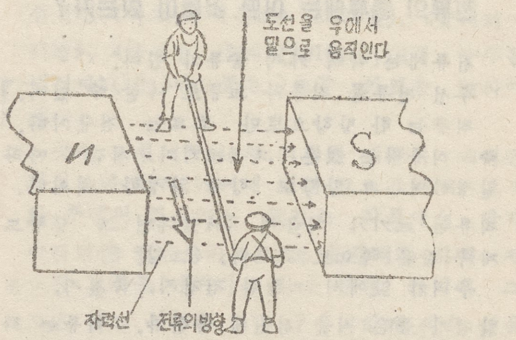


그림 3. 도선으로 자력선을 끊으면 전기가 생긴다.

전지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 날 때 발생하는 전기를 리용하는 전원이다. 전지에는 건전지, 축전지 등이 있다.

건전지는 염화암모니야 또는 염화나트룸(소금) 용액 속에 아연판과 탄소봉을 세운 것이다. 이 때 화학적 변화의 결과 탄소봉이 양전기, 아연판이 음전기를 띠게 된다. 보통 용액은 풀 등과 반죽하여 흘러 버리지 않게 하여 아연 그릇 (음극의 역할을 한다.) 안에 넣고 그 중심에 탄소봉 (양극)을 세운다. 건전지의 작용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탄소봉 주위에 이산화 망강의 립자로써 둘러 싼다. 건전지의 기전력은 약 1.5V이다. 건전지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쓸 수 없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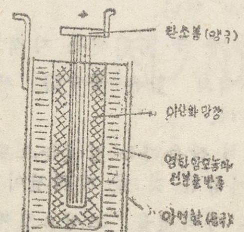


그림 4. 건전지

그러나 축전지는 한 번 사용한 후에도 다시 전기를 넣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축전지 중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이 연 축전지이다 연 축전지의 양극은 과산화 연판, 음극은 연판이며 용액은 희류산 용액이다. 연 축전지의 기전력은 약 2V이다.

전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전류를 직류와 교류로 나눌 수 있다.

직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이다. 즉 직류라는 것은 그 크기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며 그 방향도 항상 일정한 것이다. 직류는 크기가 처음에 5A였다면 그 방향도 계속 같은 쪽으로 흐른다. (그림. 5)

우리가 앞에서 고찰한 건전지, 축전지, 직류 발전기 등은 직류 전원에 속한다. 직류는 화학 공장이나 전기 철도 등 특수한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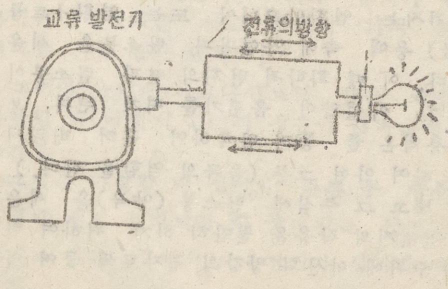


그림 5. 직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만 사용되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기나 전등은 다 교류를 사용한다.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말한다.

그리하여 교류는 어느 쪽이 양전기이고 어느 쪽이 음전기인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바뀌운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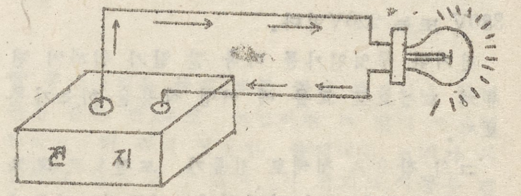


그림 6. 교류는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마치 그림 7에서와 같이 왕복 뽐프에서 피스톤을 좌우로 운동시킬 때 철관을 따라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류사하다. 교류는 이 철관 내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의 크기와 방향이 시시로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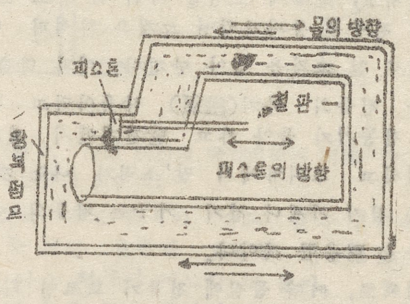


그림 7. 왕복 뽐프를 운전하면 철관로를 따라 물이 왔다 갔다 한다.

교류는 단상 교류와 3상 교류로 분류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고찰한 모든 교류는 두 줄의 전선으로 부하(전기의 소비자)에 련결된다. 전등이나 전열기 등은 두 줄로 련결된다. 그러나 양수기나 탈곡기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들은 모두 세 줄의 전선에 련결된다. 이와 같이 세 줄로 련결되는 전기를 3상 교류라고 하며 두 줄로 련결되는 교류를 단상 교류라고 한다.

3상 교류는 단상 교류보다 송전하거나 배전할 때 도중 손실이 적고 전선 재료가 적게 들며 또한 3상 교류에 련결된 전동기는 쓰기가 편리하다. 때문에 우리는 3상 교류를 많이 쓰고 있다.

오늘날 생산되는 전력은 거의 전부가 3상 교류이다. 3상 교류는 단상 교류 세 개를 모은 것이다. 따라서 3상 교류 세 줄 중에서 두 줄만 끄집어 내면 단상 교류이다.

투지와 정열의 화신

—워이니치의 장편 소설 《등에》에 대하여—

김 헌순

장편 소설 《등에》는 19 세기 30 년대 이태리의 장성하는 민족 해방 투쟁을 형상화한 빛나는 화폭이다.

재능 있는 영국 녀류 작가 워이니치에 의하여 창작된 이 작품은 인민을 위한 위업에 바쳐지는 심장의 그 뜨거운 혁명적 정열과 죽음을 넘어 서서 행복한 미래를 열망하여 마지 않은 그 불패의 투사적 의지의 힘, 랑만의 매력으로 해서 오늘도 세계 선진 인류를 특히는 싸우는 새 세대들의 가슴을 후덥게 해 주고 있다.

부르죠아 문예 학자들이 워이니치의 이름을 그처럼 집요하게 묵살하려 들며 영국 문학의 커다란 저서에서조차 그의 빛나는 문학 활동과 불후의 장편 소설 《등에》를 상기시키지 않으려 날뛰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작가 에텔•워이니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1864년 영국의 한 수학자의 딸로 태여났으며 로씨야 황제의 추방을 당하여 영국 런던에 와 있던 파란 정치 망명가이며 문예 학자인 엠•웨•워이니치(껠첩쓰끼)와 결혼하였었다.

백림에서 음악 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태리, 로씨야 등지를 전전하면서 선진적인 지식인들, 정치 망명객들과 사귈 기회를 가지였으며 선진 조직들의 회합들에도 드나든 일이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진보적인 로씨야 문학에 흥미를 느끼고 몇몇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 출판한 일도 있었다.

작가 워이니치의 문학적 재능은 바로 이 모든 생활 체험과 지식 우에서 꽃피게 되였다.

그리하여 1897년 그의 첫 장편 소설인 《등에》가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이 작품에서부터 그는 일관하여 로씨야, 파란, 이태리 등 여러 나라들에서 직접 목격하였던 거세찬 민주주의적 운동에로 자기 창작 세계를 돌리였으며, 부르죠아 사회의 침체성과 비인간성, 반동 세력의 기둥이였던 교회의 정치 도덕적 부패성과 기만성, 죄악성 등을 폭로하며 낡은 사회 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싸우는 혁명 세력—진정한 혁명적 애국자의 불굴의 힘을 예술적으로 확인하려 하였다.

《등에》를 비롯하여 이후에 창작된 장편 소설들인 《잭크 레이몬드》(1901년), 《올리비야 레템》, 《끊어진 우정》(1910년), 《제 구두를 벗어라》(1946년) 등은 모두 이것을 말하여 준다.

장편 소설 《등에》의 거대한 예술적 매력은 무엇보다 먼저 거기에 넘쳐 흐르고 있는 고귀한 투쟁의 열정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당대 이태리를 질식시키고 있던 불합리한 사회 제도와 교회를 단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낡고 부패한 것과 무자비하게 싸울 것을 정열적으로 호소하고 그 싸움이 기필코 승리하고야 말리라는 신심을 힘 있게 고취하였다. 이 매력이 바로 위대한 인민 해방의 리상을 위한 투사인 오워드(등에)의 불멸의 형상 속에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소설은 3 부로 구성되고 있으며 사건의 줄거리는 이미 혁명 조직과 련계를 맺고 있었던 청년 투사 아르뚜르의 기구한 운명과 그 투사적 성장을 둘러싸고 전개되여 나간다.

당대—1830~40 년대 이태리는 국가 통일을 박탈 당하고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분렬된 채 오지리 제국의 포악한 학정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로마 법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천주교 세력

은 오지리 제국의 공개적이고 충직한 동맹자로 되였으며 이태리 여러 지방의 왕들은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압박하는 폭군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악랄한 경찰 제도로 뒤덮게 하였다.

이태리의 수 많은 애국 투사들과 인민들은 전제 정치를 전복하고 외래 침략 세력을 구축함으로써 통일된 이태리 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영웅적인 싸움에 궐기하였다.

소설의 1 부는 바로 비밀 혁명 조직인 마드지니 당의 제 1 차 폭동이 실패한 1831~1833 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뻬에몬드 또스카나와 이태리 경내 기타 지역에서 마드지니 당의 혁명 조직들이 지하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경찰들의 발광적인 간첩망을 뚫고 혁명적인 청년 학생들과 진보적 세력과의 련계를 보장하고 있었다. 1833년 여러 차례의 폭동이 일어 났으나 그것은 오지리 제국의 지지를 받는 학정에 의하여 탄압되였다.

주인공 아르뚜르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기 혁명 활동의 첫 걸음을 내디딘다.

소설의 첫 대목에서 우리는 조국에 대한 뜨겁고도 순결한 사랑을 지니면서도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벗과 원쑤를 분간하지 못 하는 나어린 투사 아르뚜르의 형상을 만난다. 그의 가슴 속에는 모순되는 두 감정이 자리잡고 있였다. 그의 정신적 지도자인 몬따넬리 신부에 대한 헌신성과 지극한 종교적 신심이 그 하나이고 그로 하여금 혁명 조직에로 이끌었던 뜨거운 조국애가 다른 하나였다. 이 두 감정은 당시 이태리에 조성된 복잡한 사회 정세하에서는 타협될 수 없는 모순이기도 하였다.

이 모순으로 하여 주인공 아르뚜르는 바로 기구한 운명에 희롱 당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종교의 기만적 본질을 미처 깨닫지 못 하였던 그는 신부 앞에서 하는 참회에서 조직의 비밀을 고스란히 바치며 이것을 계기로 조직은 혹심한 피해를 입는다. 그 만큼 아르뚜르는 종교적 신비주의에 매혹되고 있었던 것이다.

혁명 조직에 대한 본의 아닌 배반과 애인 젬마와의 결별, 출옥 직후 가정에서 받은 정신적 타격 등으로 하여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드디여 자살을 가장해 놓고는 정처 없는 방랑

의 길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조국에 대한 깨끗한 사랑만을 지니고 남몰래 떠나 간 청년 주인공 아르뚜르는 13 년 후에는 《오워드(등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뛰여난 혁명 투사로 성장하여 이태리 혁명 운동 전선에 혜성과도 같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배'군, 며관 심부름'군, 가축몰이, 농장 품팔이, 곡예단 광대, 학대 받는 거지…방랑의 13 년 간에 겪은 생활의 무서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그는 진리와 정의를 깨달았으며 증오와 복수를 배웠다. 《그 모든 것을 견디여 냈고 인내성 있게 마음을 달래고 단련시켜 온》 것은 오직 《생활에 다시 들어 가서…싸움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그는 책상 우에서가 아니라 바로 최하층 생활의 무서운 지옥 속에서 싸움을 배운 투사였던 것이다. 그가 《등에》(마소의 등에 붙어 피를 빨아 먹는 곤충의 일종)라는 별명으로 불리울만치 반동 세력의 학정과 위선에 향해진 그의 필봉과 언변이 그처럼 무자비하고 날카로왔던 것은 응당한 일이다.

국경을 넘어서까지 널리 알려진 혁명가 《등에》는 국내외 여러 혁명 조직들과 련계되고 있었으며 고통 받는 인민들과는 더욱 밀접히 련결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소설 제 2 부에는 《등에》를 중심으로 한 혁명 투사들이 이태리 국내 여러 나라들을 비밀리에 넘나들면서 수행하는 아슬아슬한 혁명 활동의 화폭이 펼쳐져 나간다.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 당대 이태리 정치 무대에서 만나는 것은 비단 투사적 인간만이 아니라 가지각색의 부르죠아 혁명가들이 제가끔 활개를 치고 있었다. 대기업가, 대지주 출신, 자유주의 분자들, 부르죠아 교수와 문학가들…부유한 변호사 그라씨니의 응접실에 자주 모이군 하던 그들의 입에서는 흔히 《가련한 노예 이태리》니, 《우리의 불행한 조국》이니 하는 무기력하고 기만적인 사설이 자주 튀여 나오군 하였다.

《등에》는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 정객들의 《애국주의》를 조소하였으며 그들의 정치적인 《온건성》, 《신중성》을 신랄히 비판하였으며 폭동에 대한 그들의 공포를 차디차게 조소하였다.

조국 이태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던 원쑤들에게 무한한 증오를 품고 있은 그는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무기와 비밀 출판물의 반입 공작을 수행하기도 하며, 비수와 같은 예리한 폭로와 비판의 힘을 가진 글로써 대중을 투쟁에로 부르기도 하며, 그의 숨은 친아버지인 신부 몬따넬리를 상대로 반동적인 종교 세력에로 싸움의 화살을 보내기도 한다. 이 모든 혁명 활동 과정에서 그의 세련되고 단련된 정치 활동가—혁명가의 거인적 성격이 뚜렷이 부각된다.

특히 무기 반입 공작 도중 체포되여 감옥의 시련을 겪는 장면과 사형이 집행되는 장렬한 장면, 옥중 생활 과정에서 맺어지는 신부 몬따넬리와의 형상적 관계는 못내 잊을 수 없다.

원쑤들은 투사 《등에》를 감옥에 가두고 그의 심장에 탄알을 박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기만과 죄악을 불태우고 자유롭고 통일된 조국의 래일로 나래치는 그의 혁명적인 투쟁 정신과 투철한 리상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다.

《당신은 착란과 착오로 가득 찬 이 썩어 빠진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정말 밑바닥까지 썩어 문지러져서 고약한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불'빛 휘황한 다른 세상으로 나와 함께 갑시다!…우리는 삶과 청춘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봄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입니다.…새벽 노을이 가까와 왔습니다. 정말 당신은 태양이 솟아 나는 것을 돕는데 자기의 힘을 바치지 않으시렵니까? 잠에서 깨여 나십시오. 그리고 무서운 밤의 악몽을 잊어 버립시다…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사형을 앞둔 아들을 찾아 온 신부—아버지인 몬따넬리를 앞에 두고 부르짖는 절절한 목소리다. 미래를 내다 보는 이 자랑스럽고도 숭엄한 넋을 지녔기로 해서 그는 비극적인 사형 집행 장면에서도 그처럼 거연하고 떳떳할 수 있었으며 사랑하는 젬마에게 아래와 같은 투사적 락천과 긍지가 울리는 편지를 남겨 놓을 수 있었다.

《만약에 살아 있는 당신들이 튼튼히 손을 잡고 공격해 나간다면 멀지 않아 당신들이 위대한 사변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래일이면 나는 명절날 집으로 달음질치는 어린 학생들과도 같이 그렇게 즐거운 심정으로 사형장에 나갈 것입니다…나는 사업에서 내가 할 몫을 다하였습니다. 사형 선고—이것은 사업에서의 나의 몫이 성실하게 수행된 데 대한 증거일 따름입니다.

놈들은 내가 저희들에게 공포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나를 죽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작품이 보여 주는 사상적 내용의 거대한 폭은 비단 주인공 《등에》와만 관련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왕의 참심원이며 《등에》의 친아버지인 몬따넬리를 비롯한 신부 집단의 형상은 종교적 기만의 본질, 반기독교 사상의 의의 깊은 주제를 해명하고 있다.

소설 제 1 부에서 나타나는 두 신부 즉 몬따넬리와 카디의 형상은 비록 빛갈에 있어 다른 바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와 법의를 앞세우면서 온갖 위선과 배신과 기만을 다하는 반인민적 기독교 세력의 가면을 여지없이 벗기고 있다.

나어린 아르뚜르에 대한 몬따넬리의 사랑은 표면 상으로는 아름답고 자비로웠지만 본질적으로는 천박하고 위선적이고 보잘 것 없는 것이였다. 그가 인민들에게 온갖 선행과 자혜를 베푸는듯 가장하여 나서며 병자들을 위해서 주택을 제공하고 정치범을 옹호하고 류혈적 사변을 예방하는듯이 기만적으로 행동하였을 때 그것은 흔히 이태리의 통일을 반대하며 반동 정권과 결탁된 정치적 음모나 리간과 사기 수단 이외 다른 아무 것도 아니였다. 그만큼 몬따넬리의 기독교적 륜리의 설교는 본질적으로 허위적인 것이였던 것이다.

아들인 아르뚜르—《등에》의 그처럼 뜨거운 충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몬따넬리는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의 사형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파멸적인 모순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정의와 진리, 생활의 거세찬 흐름에 의하여 교회의 설교, 종교의 도덕 륜리가 준엄한 심판을 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설을 일관하고 있는 적극적인 항의와 투쟁 정신, 혁명적 위업에 대한 확고 부동한 신심과 긍지, 슬기 있고 용감한 인간 정신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감명 깊고 교훈적인 것이다.

색갈과 생활

채명화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색에 대한 높은 소양과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인민들이 산명수려한 우리의 조국 강산을 열렬히 사랑하며 깨끗하고 어진 마음씨를 간직한 데서부터 오는 것이리라…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이는 옷을 잘 입어야 인품이 돋우 보인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좋은 천으로 만든 옷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천으로 지은 옷이라도 철에 따라, 나이에 따라 혹은 주위 환경에 따라 적당한 색갈을 맞춰 입지 못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속까지도 천하게 보일 것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잘 조화된 식당에서는 어딘가 음식 맛이 더 있는 것 같고 조명과 색 조화가 과학적으로 된 교실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기억력에 좋은 영향을 주며 깨끗하고 화려한 직장은 일을 흥겹게 하여 준다.

이는 색갈이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면 색갈에 대하여 말해 보기로 하자.

색갈을 구체적으로 알자면 화학, 물리학, 생리학 및 심리학적으로 그 연구 범위가 아주 넓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색갈이라고 하는 것은 색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색갈은 대개 색상, 색의 명도, 색의 순도 및 색 대비 등 세 가지 속성으로 나눈다. 우리가 붉다, 노랗다 하고 색갈을 구분하여 부르는 것을 색상이라 하고, 같은 붉은 색이라도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색의 명도라고 한다. 또 같은 붉은색이라도 선명한 것과 선명치 못 한 척도를 우리는 색의 순도라고 한다.

색갈은 색상에 따라 더운색과 찬색으로 나누인다.

붉은 계통의 색갈은 정열적이며 더운 감을, 청색 계통의 색갈은 시원한 감을, 노란색 계통의 색갈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자연 현상과 사물 (물, 불, 태양, 하늘, 밤과 낮 등) 에 대한 감정의 연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더운 감과 찬 감은 색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검은색, 회색, 흰색 등 무채색의 밝기 즉 명도에도 관계된다. 우리가 여름철에 흰 옷을 비롯한 밝은 색의 옷을 많이 입고 겨울에 검은 옷을 많이 입는 것은 색채의 더운 감, 찬 감을 잘 리용한 실례이다.

색상에서는 황록색이 중성 계렬 색갈에 속한다. 그러나 황록색은 색의 밝은 정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찬색으로도 되고 더운색으로도 된다. 즉 명도가 높을 때는 찬색 계통에, 반대로 명도가 낮을 때는 더운색 계통에 속한다.

등색과 같이 더운색에 속하나 명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늘한 감을 주는 색도 있다. 이처럼 같은 옷감과 일용품이라도 색갈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를 자아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옷감과 일용품을 용도와 계절에 따라 색의 이러한 감정적 기능을 잘 조화시켜 만든다면 그 질은 더욱 높아지고 더욱 쓸모 있게 될 것이다.

색갈의 더운 감 찬 감은 물리적인 요소도 포함되여 있다. 만일 여름철에 더운색으로 옷을 해 입는다든가 방안을 꾸린다면 더욱 무더울 것이다. 때문에 여름의 옷차림은 흰색, 하늘색, 미색, 연분홍색 등 밝고 시원한 색 (미색과 연분홍색은 더운 색이지만 밝기 때문에 해'빛을 잘 반사되게 한다) 이 좋다. 그와 반대로 겨울 옷차림은 붉은색, 등색, 검은색, 밤색 등 더운색 계통과 순도가 높은 색이 좋은 것이다. 이것은 자연 현상의 변화와도 잘 조화되는 것이다.

즉 록음 우거진 거리들과 마을에서는 밝은 색들이 잘 조화될 것이고, 겨울철 흰 눈과 잎 떨어진 나무들의 회색 환경에는 순도가 높은 붉은색, 밤색, 등색, 노란색 등이 아름답게 드러나 보일 것이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일용품들에도 마찬가지다.

겨울에 신는 남자의 신발은 검은색 구두나 다갈색 구두가 좋을 것이고, 녀성들은 밤색, 붉은색, 적자색 등이 좋을 것이다. 반대로 여름에 남자들은 흰색, 회색, 미색 신발이 좋을 것이고 녀성들에게는 하늘색, 푸른색, 미색, 연분홍색 등 찬색 계통의 색갈과 그 밖의 색이라도 밝고 시원하거나 검은색이라도 광택이 강한 신발이 시원해 보일 것이다.

일용품의 색갈은 계절 뿐만 아니라 일용품의 용도, 해당 일용품의 기능과 성능에도 맞게 선택해야 한다.

례를 들면 선풍기는 검은색 대신에 하늘색, 청록색 등 찬색 계통의 색이나 밝은 색을 칠하는 것이 더욱 시원한 감을 줄 것이다. 랭장고 표면에는 흰색이나 연한 하늘색, 닭알색, 연한 미색이 어울리며 반사 작용에 의해 랭장고의 실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색갈을 단순하게 고정시켜 규정할 수는 없다. 례를 들면 자그마한 탁상용 선풍기는 방안 장식품으로서 비록 더운색 계통이지만 붉은색, 등색 등을 칠 할 수도 있다.

색상은 흥분 및 진정 작용도 한다.

색갈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에 활기를 주거나 흥분 작용을 일으키는 색갈이 있고 반대로 우리들에게 진정 작용을 주는 색갈도 있다.

붉은색, 등색, 노란색, 황등색은 인체의 맥박 회수를 높이며 신경에 긴장성을 준다. 대체로 더운색의 계통이 주로 흥분성 색채로 되고 있다.

하늘색, 풀색, 청록색, 청자색, 회색, 검은색 등은 진정감을 주는 색갈에 속한다.

황록색, 밤색, 흰색 등은 그 중간의 색이다.

우리는 군무《피'물은 흐른다》에서 붉은 피'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라던가 건설장에 펄럭이는 5 색기 (붉은색, 등색, 노란색, 하늘색, 록색) 를 보면서 약동하는 심정을 느끼군 한다.

그러므로 옷차림에서도 환경과 성별, 년령에따라 이러한 것을 류의하여야 한다.

례를 들면 어린이들의 옷차림이나 움직이는 놀이'감 (자동차, 뜨락또르, 삼륜차) 에는 붉은색이 어울릴 것이고 녀성들의 외출복에도 붉은색, 등색, 노란색 등을 적당하게 배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엄숙한 의식에 참가할 때 입는 옷은 침착한 색갈을 택해야 한다.

가구에서 례를 든다면 옷장이나 이불'장, 식탁 등은 등색, 토황색, 붉은색이 좋다.

그러나 학생용 책상은 검은색, 풀색 등 진정 작용을 노는 색갈로 함으로써 학생들이 침착하게 학습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안 장식에서도 침실에는 하늘색, 연록색 등이 좋다. 특히 록색은 광선이 변하여도 시각에는 변화되지 않는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는 단청을 칠하는 데서 해'빛이 잘 비치지 않는 깊숙한 곳에 록색을 칠함으로써 화려하면서도 침착한 분위기를 조성할 줄 알았던 것이다.

세계소식

중부 아프리카의 《보석》—콩고

류 수

중앙 아프리카의 동부 고원 호수들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대서양에 들어가는 콩고강을 사이에 두고 콩고 공화국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같은 이름의 두 개 나라를 구별하기 위하여 보통 이 나라 이름에 수도 명칭을 덧붙여 표기한다. 콩고강 오른편에 있는 나라는 콩고(브라자빌)이고 왼편의 나라가 여기서 소개하려는 콩고(레오뽈드빌)이다.

중앙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는 콩고(레오뽈드빌)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5도 20분에서 남위 13도 28분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로서 234만 5천 평방 키로메터의 면적과 1천 479만(1962년 현재)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콩고는 서쪽으로는 대서양, 북쪽으로는 콩고(브라자빌), 중앙 아프리카, 수단, 동쪽과 남쪽으로는 우간다, 로완다, 부룬디, 탄가니카, 로데시아, 앙골라 등 나라와 잇닿아 있다.

콩고에는 많은 농업 자원이 있으며 특히 지하 자원이 풍부하여 중앙 아프리카의 《보석》 또는 《세계 원료 창고》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요 농산물로서는 커피, 종려유(생산량 세계 제 2위) 야자유, 면화, 고무, 차, 옥수수, 벼 등이 있고 목재 생산에서도 이름이 높다.

지하 자원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 매장량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라니움, 동, 석, 금강석을 비롯하여 망간, 월프람, 은, 마그네시움, 게르마니움, 카드미움, 라디움, 철 등 희유 광물들과 유용 광물이 풍부하다.

이러한 콩고의 지하 자원 중 그의 80%는 카탕가주에 있다.

카탕가주의 광물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동은 8%, 석은 14%, 금강석은 60%, 코발트는 75%, 라디움은 100%이다.

콩고는 오랜 력사를 가진 나라로서 13세기에는 왕국이 이미 있었고 16세기에는 탱다 제국이 형성되여 높은 문화가 꽃피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주의자들의 마수는 내내 이 나라에 뻗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식민주의자들이 분할을 흥정하기 위하여 가졌던 1885 년 베를린 회의가 있은 뒤 콩고는 벨기 식민주의자들의 손에 들어 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콩고는 근 80 년 간 벨기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 얽매이게 되였다.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 통치의 전 기간 콩고 인민의 모든 것을 빼앗고 학살 만행을 일삼으면서 이 나라의 재부를 마음대로 략탈하여 갔다.

미제가 콩고의 자원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제 2 차 세계 대전을 전후한 시기였다.

제 2 차 대전 후 이 나라에 깊이 침투한 미제는 벨기, 영국, 불란서 등 구 식민주의 세력을 점차 몰아 내고 사실상 콩고에서 첫째 가는 략탈자로, 주인으로 행세하게 되였다.

1937 년에 미국이 콩고에서 략탈한 자원 총액이 300만 딸라였다면 1957 년에는 그의 34 배가 넘는 1억 300만 딸라에 달한다.

미제는 1954 년에 벨기와 《원자능 협정》을 체결하고 핵 무기와 로케트 생산에 필요한 전략 물자들인 우라니움과 코발트 생산을 완전히 독점하고 석, 라디움 생산의 50%를 장악하였다.

또한 미제는 1962년 11월에 아둘라 도당과 협정을 체결하고 콩고 광산 채굴의 90%, 코발트 광의 거의 전부, 공업용 금광석의 4분의 3을 해마다 자기 나라에 실어 가고 있다.

미국 독점체가 주요 주주로 되여 벨기, 영국과 공동 투자로 설치된 《유니온 미니에르》 회사는 벨기 전체 국토보다 더 넓은 3만 4천 평방 키로메터의 땅을 차지하고 도사리고 앉아 콩고의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있는데 이 회사는 콩고의 동, 코발트, 아연, 월프람, 우라니움, 게르마니움, 라디움 등의 채취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철도의 53%, 전력의 87%를 장악하고 있다. 1951 년 회계 년도에만도 이 회사는 자기 자본의 60%에 가까운 8천 8백만 딸라를 착취하였다.

콩고 인민은 식민주의자들이 강점한 첫 날부터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민족해방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용하게 싸웠다.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콩고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은 특히 제 2 차 대전 후 고조되였다. 콩고의 도시와 마을에서는 인민들의 시위, 파업, 폭동이 끊칠 날이 없었다.

콩고 인민의 줄기찬 투쟁은 드디어 벨기 식민주의자들을 굴복시켰으며 1960년 6월 30일 콩고 공화국이 선포되고 파트리스 루뭄바를 수상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였다.

루뭄바 정부는 대내적으로 식민주의의 잔여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힘썼으며 대외적으로는 평화 애호적 중립 정책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콩고 정부의 이러한 시책은 어떻게 해서나 콩고에 대한 침략의 야망을 달성해 보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콩고를 다시 침략할 구실을 조작하기에 급급하였다.

1960년 7월 6일 레오뽈드빌에 있는 콩고 병사들이 콩고군을 통솔하는 벨기 장교들의 축출을 요구하는 애국 투쟁을 진행한 것을 계기로 미제 침략자들은 벨기 식민주의자들을 사촉하여 부당한 무장 간섭에로 내몰았으며 7월에는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자신이 《유엔군》이라는 명칭 밑에 콩고에 침입하여 애국적 콩고군의 무장을 해체하고 중요 도시와 항구를 강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미제는 자기 나라 반동 두목들이 참가한 《자유 카탕가 원조 미국 협회》라는 것을 조작하여 콩고 인민의 반역자인 카탕가의 촘베 도당에게 재정적 《지원》을 주면서 카탕가를 분렬시키는 책동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또한 매국 악당인 모부트 도당을 조종하여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국회를 폐쇄하고 애국 인사들을 체포 투옥케 하였으며 1961 년 1월 18일에는 촘베 악당을 시켜 파트리스 루뭄바를 학살하는 천인 공노할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8월에는 아둘라 도당의 괴뢰 정부가 조작되였다. 미제는 1962 년 콩고 정부의 합법적 계승자인 기젱가를 체포하여 콩고강 하류에 있는 질병의 무인도 불라벰바 섬에 감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콩고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자유와 민족적 독립은 미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유린되고 콩고 땅 우에는 무권리와 빈궁, 몽매와 죽음만이 강요되는 식민지 통치의 검은 구름이 또다시 드리우게 되였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로 인하여 콩고 경제는 극히 락후하며 인민 생활은 비할 수 없이 비참하다. 콩고 로동자들의 임금은 구라파인의 33분의 1에 불과하며 사망률은 구라파의 7.5 배나 된다. 콩고에는 콩고인 의사가 단 1 명도 없다.

1963 년 초에 콩고에는 전체 로력자 수의 50%가 실업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똑똑히 보여 준다.

그러나 압박이 있는 곳에 항거가 있는 법이다.

꽁고 인민은 드디여 무장을 들고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떨쳐 나섰다.

금년 1월 중순 꽁고 해방 리사회(이 조직의 지도자는 루뭄바 정부의 교육 문화상이였던 물렐레이다.)의 지도 밑에 쿠일루주에서 첫 봉화를 든 꽁고 인민의 무장 투쟁은 삽시에 키부주, 꽁고주로 확대되였으며 최근에는 카탕가주와 레오폴드주에 옮겨지고 있다.

금년 6월에 들어 와 북부 카탕가의 주요 도시 알버르빌을 해방시킨 꽁고 애국자들은 그곳에 자기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오늘에 와서 인민 무장 부대는 초기의 300 명 정도로부터 1만 명 이상의 대오로 확장하였으며 그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불란서의 면적을 릉가 하고 있다.

꽁고 인민 무장대의 진격 앞에 미제와 그 괴뢰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괴뢰군의 사기는 떨어져 투항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제는 당황망조하여 군대와 장비를 더 많이 끌어 들여 이를 진압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최근에만도 미제는 괴뢰 도당들에게 10 대의 수송기, 10 대의 직승 비행기, 6 대의 전투기, 22 대의 화물 자동차, 63 대의 짚차를 포함한 많은 군사 장비를 괴뢰 도당에게 넘겨 주었으며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여 인민 무장대의 활동 지역을 폭격하였다.

타방으로 미제는 아둘라 대신 쏨베를 수구로 들이 앉히고 소위 《민족적 화목》이라는 말쿰한 말을 늘여 놓으면서 위급한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는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피의 경험을 통하여 각성된 꽁고 인민을 놀래울 수도, 기만할 수도 없다.

이 번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참가하였던 꽁고 대표단장이 《조선 인민의 모범을 따라 꽁고에서 미제를 쓸어 버리겠다.》고 말한 바와 같이 꽁고 인민은 혁명적 폭력으로 미제를 내쫓고야 말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꽁고는 말 그대로 《중부 아프리카의 보석》으로서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시)

꽁 고

파트리스 루뭄바

도도히 흐르는 대하의 강'둑
희망으로 꽃피는 강'둑은
그대의 것이여라,
이 날 이 때로부터는
가없이 맑은 하늘
쨍쨍히 내리 쪼이는 태양은
뜨거운 물'결을 일으키며
우리의 슬픔을 풀이 주리라.
그 뜨거운 빛'발로 하여

오랜 세월 흘러 왔던 눈물의 홍수도
말라 버리거니
포악한 상전들에게 살륙 당한 조상들
우리 어버이들의 원한도 가시여지리라.
이제 그대는 건설하리라.
그대 언제나 사랑하는 이 땅 우에
넓고 넓은 아프리카 땅
흑인들의 아프리카 바로 그 심장에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꽁고를.

단편소설

두 운 전 수

김 영 길

올해 스물 여섯 살 난 군 농촌 건설대 운전수인 경식이는 몸'집도 패 크고 일도 떡 잘하는 동무이다. 그는 자동차 운전수 양성소를 나온 후 4 년 동안에 한 번도 잘 못 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으며 이웃 간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식이가 한 번은 자기보다 훨씬 나어린 운전수에게서 은근히 교양 받은 일이 있었다.

일인즉 이렇게 시작되였다. 어느 날 그는 군에 있는 부재 공장에서 기와를 잔뜩 싣고 100 리 가량 떨어진 덕바위'골로 향했다. 예년에 드문 장마가 있은 뒤끝이여서 길은 진창 투성이였다. 그가 진창'길에 빠지면서 신고스럽게 한 절반길쯤 달렸을 때였다. 뜻밖에도 연유 펌프가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멎고 말았다. 일인즉 난감하게 되였다.

《제一길》 경식이는 투덜거리며 차에서 훌쩍 뛰여 내렸다. 고장 난 부분을 아무리 들여다 보았댔자 별로 뾰족한 수가 없었다. 단단한 고장이 생겼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차에 끌려 가야만 하였다.

그는 오래 동안 차가 나타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장마 뒤끝이여서 길이 나쁜지라 다니는 차는 매우 드물었다.

실히 두어 시간 지났을가? 멀리에서 우룽우룽하는 발동기 소리가 들렸다. 그 때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경식이는 가까와 오는 차를 향하여 얼른 손을 들었다.

《치익—》

차는 멎었다. 그런데 경식이가 미처 그리로 다가 서기도 전에 창문이 벌컥 열리며 새파란 머리 수건이 불쑥 나타났다.

《뭐예요? 어디 고장 났어요?》

그것은 나어린 처녀 운전수였다. 경식이는 어쩔바를 모르고 한동안 처녀를 쳐다만 보았다. 통통한 몸매에 착 붙은 곤색 작업복, 귀밑으로 날리는 부드러운 머리칼, 앵두 같이 발그레한 량볼…(허, 요런 처녀한테 끌려 가다니, 이게 글쎄 무슨 창피람.)

경식이는 갑자기 기분이 상해 났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처녀는 마치 이런 경식이의 심정은 아랑곳할 바 없다는듯이 차에서 가볍게 뛰여 내리더니 경식이의 차를 살펴 보고 나서 《연유 펌프가 고장이 났군요. 끌어다 드려야겠어요.》 하고 말했다.

처녀는 날쌔게 자기 차로 달려 가더니 와락 와락 와이야 룽구리를 꺼내기 시작하였다. 경식이는 내심 내키지 않으면서도 가만히 있기도 난처한지라 처녀의 일'손을 거들어 주었다.

잠시 후 경식이의 차는 그 조그마한 처녀의 차에 끌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 때까지도 웬일인지 경식이의 마음은 풀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처녀의 운전 솜씨에 새삼스레 놀랬다. (고추는 작아도 맵기만 하다더니…)

차는 길'가의 리정표들을 지나치면서 계속 달렸다. 길을 복판에 두고 아담한 문화 주택들이 량쪽에 늘어선 마을에 들어 서자 뜻 밖에도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다. 알아 보니 장

난꾸러기 사내애 하나가 차 앞으로 갑자기 뛰여 건너 갔기 때문이였다. 그 운전수 처녀는 넘어져서 흙이 묻은 예닐곱 살 난 그 사내애의 몸에서 흙을 털어 주고 있었다.

《거 좀 단단히 혼내우시오.》

경식은 성난 김에 큰 소리로 웨쳐대였다. 그러나 처녀는 그 애의 머리를 살뜰히 쓰다듬으며 타일러 주고 있었고 잠시 후 달려 나온 그 애의 부모들과 마을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

이윽고 차는 다시 떠났다. 그런데 경식은 당장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조금 전에 붙잡혀서 타이름을 받던 그 사내애는 두 팔을 척 벌리고 다른 애들이 길에 못 들어 서게 하고 있었고 부모들 역시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타이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경식이는 몹시 감복하였다.

(과연 옳은 방법이로구나. 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저 큰 소리로 혼내우기만 했는데…)

경식이는 이 때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가 처음에 이 처녀를 하찮게 생각한 것이 미안스럽게 생각 되였다.

(겉보기가 속보기라더니 이 처녀는 정말이지 생김새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아주 훌륭하군.)

갑자기 처녀에게 큰 페를 끼치고 있는 것이 미안스럽게 생각된 경식이는 한참 달리다가 쉴 참에 물어 보았다.

《동무는 어디까지 갑니까? 혹시 저 때문에 갈 길이 늦어지면…전 요다음에 있는 우편국 앞에 멈추어 전화로 중대에 알리면 될텐데요.》

그러나 처녀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생끗 웃었다.

《아이 참, 생각해 보세요. 동무는 그래 곤난에 빠진 동무를 두고 그냥 달아 나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 생각 해 본 일이 있었어요?》

또 한 대 얻어 맞은 셈이였다. 그럴수록 경식이는 처녀에 대한 언짢은 마음보다도 존경의 마음이 더해져 갔다.

차는 사위가 어두워서야 목적지인 덕바위'골 상점 앞에 도착하였다. 상점 앞은 전등'불이 환했다.

경식이는 자기를 곤난한 처지에서 구원해 준 처녀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더욱 치받쳐 다시 한 번 물어 보았다.

《저—그런데 정말 어디까지 가십니까?》

《호호, 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저는 더현 협동 농장에 있어요.》

《뭐 더현리요?》

경식이는 너무도 놀라와 목소리까지 떨렸다. 더현리라면 여기에서 정 반대되는 방향으로 아직도 세 시간은 더 달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처녀는…!

《좀 쉬였다 가시지요》

《안 돼요. 저에게는 꼭 가야 할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느 새 차에 올라 악세레따를 힘껏 밟는다. 하는 수 없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차는 차츰 멀어져 갔다. 경식이는 어쩐지 서운한 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니 자기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배운 것만 같았고 또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한 인간을 발견한 것만 같았다.

그 날부터 경식이의 마음 속에는 그 처녀가 영원한 무지개처럼 비껴 있었다. 얼마 후 동무들은 어떻게 그 처녀의 이름까지 알아 냈던지

《더현 협동 농장 ×××호 차 김 순란 동무 앞》이라고 쓴 새'하얀 봉투를 들고 우편함 앞으로 다가 가는 그를 보았다.

(필자—해주 도시 시설 사업소 사로청원)

청년 생활 제 8 호 (류계 179)

편집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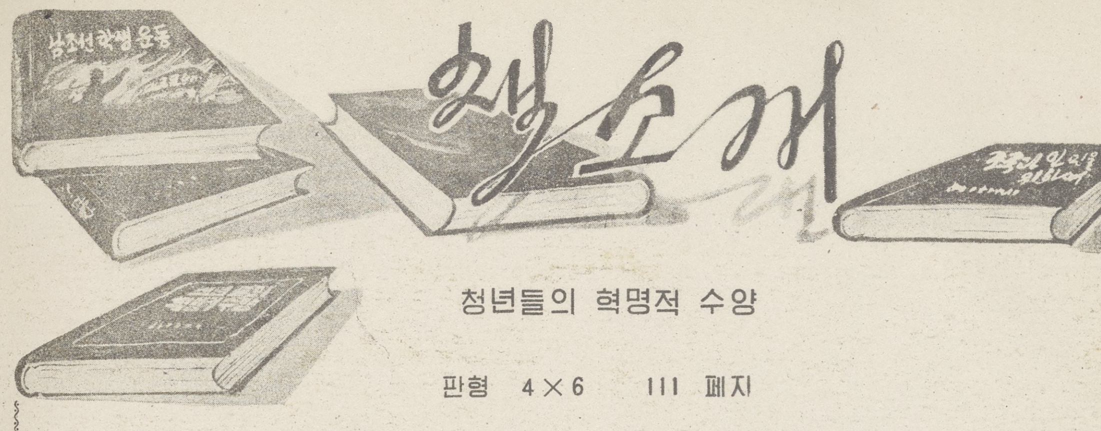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쇄 1964년 8월 4일 발행 1964년 8월 9일

ㄱ 430438 값 45 전



청년들의 혁명적 수양

판형 4×6 111 페지

사람들은 청년 시절을 인생의 봄이라고 말한다.

1 년 농사가 봄철에 달려 있듯이 한 평생을 값 높게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청년 시절에 어떻게 수양하고 단련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이 책에는 《혁명에 참가하는 것 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당에 대한 충실성》, 《혁명 전사의 계급적 립장》 등 청년들의 수양에 절실히 필요한 13 편의 글들이 수록되여 있다.

독자들이여! 모두다 이 책을 읽자!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발행

남조선 학생 운동

판형 4×6 200 페지

이 책에는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이 상세히 씌여져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공화국 북반부의 눈부신 성과에 고무되면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 온 력사적 로정을 알게 될 것이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3)

판형 4×6 200 페지

기억이란 시간이 감에 따라 희미해지는 것이 례사이다.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생생히 되살아나 사람들을 새로운 위훈과 투쟁에로 고무하는 것이 있다.

이 책에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조선 인민군 용사들과 후방 인민들이 전선과 후방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수록되여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 용감성과 대담성 등을 배우게 될 것이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발행



(유화) 정 오 장명룡 작